

# 김삿갓문화제

김삿갓 시 속의 정취를 나누다



# 27

나  
고  
Nango

김삿갓문화제 연간지

2024. 제1호

연간지<난고>는 영월에서 가을에 개최되는 김삿갓문화제 소식을 담아 일 년에 한번 발행하는 잡지다.

조선후기.

관세를 뒤로한 채 서민들이 걷는 길을 따라 방랑했던 시인, 난고 김병언

김병언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김삿갓문화제에서

그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으며

잊혀져가는 김삿갓의 여정과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고자 한다.

제1호 <난고>에서 그 첫 기록을 남겨본다.

김삿갓문화제  
연간지 제1호  
『난고』

첫 기록  
OPEN NOTE .

여는 글 ①

# 회 한 의 방 랑 시 인 김 삿 갓

세월을 거슬러, 문학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다.

한 평생 천하를 주유하며 방랑의 삶을 살면서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수 많은 글을 남긴,

방랑시인 난고(蘭皐) 김병연(金炳淵, 1807~1863)을 기리는 행사가

해마다 영월군 김삿갓면 노루목에서 이른 가을에 열린다.

올해로 스물일곱 번째를 맞이했던 김삿갓문화제는 '시속의 정취를 나누다'란 주제로,

그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가치는 어김없이 문화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김삿갓요역에서 난고 김병연의 닛과 예술혼을 기리는 추모제례,

지방향시를 재현하는 조선시대 과거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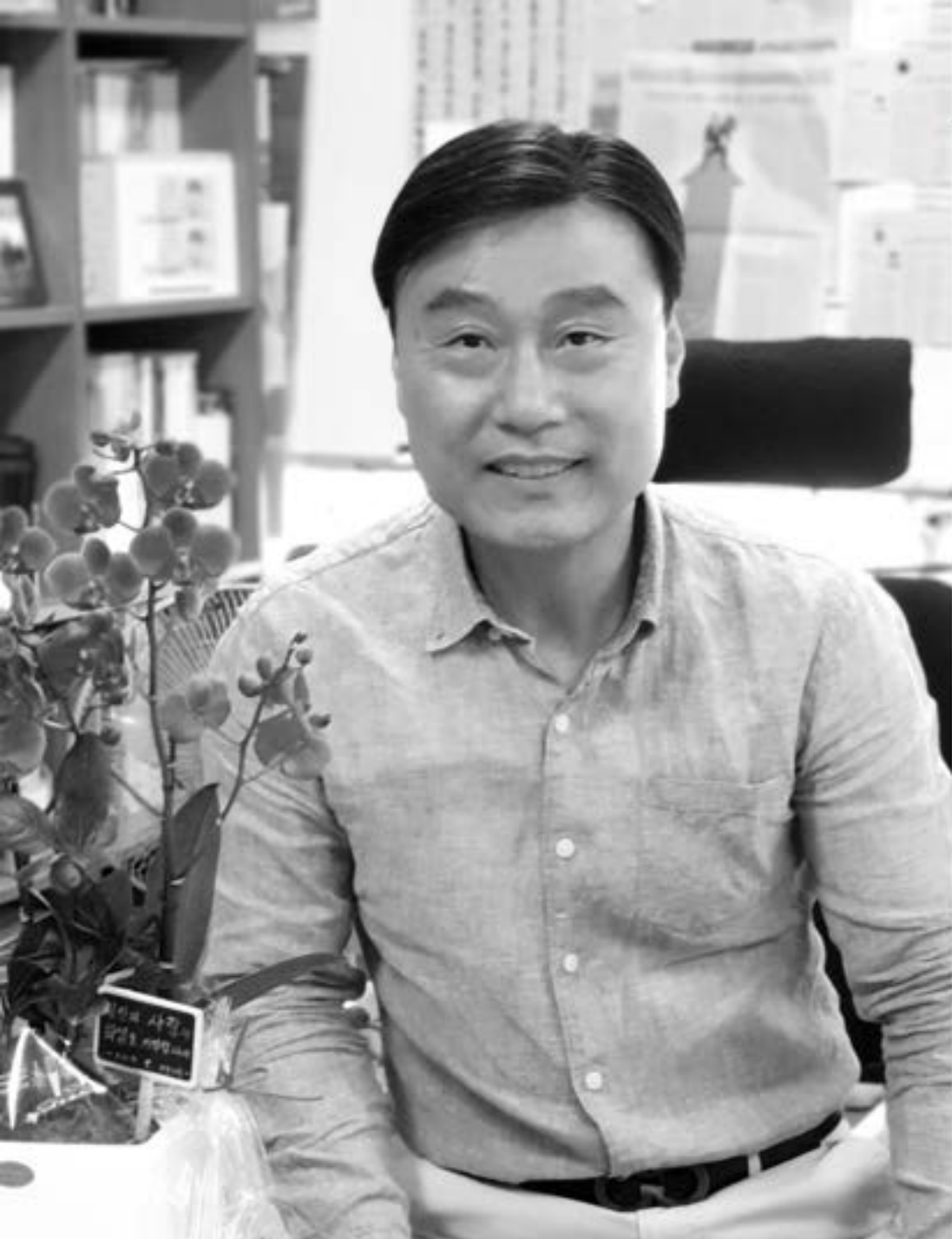
삿갓과 두루마기 붓집으로 체험하는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 학술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손색이 없다.

난고 김삿갓은 강원도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당대에 최고의 별명가문(閼閼家門)이었던 안동김씨의 일원이었으나, 김병연이 다섯 살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1771~1812)으로 그의 인생행로가 바뀌었다. 김삿갓이 21세 되던 해인 순조27년(1827) 영월 동헌에서 열린 백암장에서 조부 김익순을 망군(忘君) 불충(不忠)으로 표현한 시를 지어 장원을 하였지만 뒤늦게 조부에 얽힌 내막을 안 그는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겨 삿갓을 쓰고 유랑의 길로 나섰다.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좌절은 우리나라 문학사에 크고도 독특한 족적과 독보적인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 1863년 57세를 일기로 전남 화순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시대와 권력, 부자를 풍자하고 조롱한 불세출의 시객(詩客)으로,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지금의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에 묻히고 유랑을 끝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한 수의 시로 읊고 있다.

새는 동지가 있고 짐승도 재물이 있는데  
내 평생 돌아보니 홀로 상처뿐이구나  
짐신에 죽장 짐고 천리를 떠돌며  
물처럼 구름처럼 유랑하니 사방이 내 집일세

단 한 번의 생애를 통째로 던져 파격과 일탈의 고된 삶을 살다 갔지만 그의 고행은 후세에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여지(餘地)와 여백(餘白)을 개척해 놓았다. 이렇듯 김삿갓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하는 '김삿갓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처음 출간하는 연간지 〈난고〉는 잊혀져 가는 김삿갓의 여정과 이야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 사회적 불평등,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예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김삿갓문화제를 통한 우리시대의 나아갈 방향과 해답을 찾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삿갓(김병연)을 흔히들 방랑시인(방랑시인)이라고 한다. 200여년 전의 김삿갓은 최근 현대인들이 그렇게도 추구해보고 싶은 삶을 사신 분이다. 방랑은 영어로 노마드(nomad)이다. 노마드에 워크를 붙여 노마드 워크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근무방식이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와이파이(Wi-Fi) 환경으로 장소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통상의 사무실 이외의 찻집,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면서 놀기도 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각광을 받고 누구나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근무방식이기도 하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 워케이션(Worcation)도 이미 김삿갓이 추구하여왔던 방식이다. 김삿갓은 이미 200여전 전에 현대를 산 사람이다.



김삿갓문화제

연간지 제1호

「난고」

첫 기록

OPEN NOTE .

여는 글 ②

김삿갓(1807~1863)은 조선 후기 양반 출신으로 순조 7년에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철종 14년 전남 동북현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김삿갓은 지방 과거에서 급제하였으나 할아버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자신을 한탄하며 두문불출하다가 결국 전국 각지를 떠도는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 급제할 정도의 출중한 글 솜씨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덧붙여진 산 지식으로, 김삿갓의 시 세계는 수려한 문장뿐만 아니라 해학과 풍자로 가득하다. 김삿갓에게 시(時)라는 것은 밥줄이자, 외로움과 고독을 풀어주는 스트레스 해소제였으리라.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노마드 랜드(Nomadland)」 영화에서 방랑자이자 주인공 폼(Fom)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김삿갓과 같은 '시의 힘'이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 상 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계곡에는 김삿갓이 명면해 있으며, 김삿갓문학관이 있고, 이곳에서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미 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하였으며, '김삿갓, 시속의 정취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금년부터는 특히 김삿갓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려 문학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였다. 단순히 즐기고 노는 축제를 넘어 김삿갓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김삿갓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시적을 알리는 「난고」를 출간하고, 앞으로 문학가들의 참여공간도 마련하여 '김삿갓문학집'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할 것이다. 김삿갓문학제에 대한 더 많은 문학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김삿갓 에세이

KIMSATGAT ESSAY



영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인(詩人)·묵객(墨客)들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오랜 역사와 예술의  
혼을 간직한 문향(文鄉)의 고장이다. 예로부터 정감록의 기록에는 영월을 “흉년이 들지 않고 전쟁이 없는  
피란의 땅”인 ‘십송지’라 하였다. 또한 인심이 순후(淳厚)하고 충의(忠義)를 숭상하고 의민열사의 전통을  
간직한 충절의 고장이다. 그리고 방랑시인 난고(蘭阜) 김삿갓(김병연, 1807~1863)의 해학적인 풍류시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난고 이야기 : 김삿갓에세이

## 김병연을 기리는 마음

영월문화원장  
김삿갓문화재위원장

엄 홍 용



김병연 선생은 조선 후기 방랑시인으로 민중의 한과 실움을 해학(諧謔)과 풍자(諷刺)로 읊으며 일생을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 간 풍운아였다. 김삿갓은 과체시(科體詩)에도 능했는데, 현재 그의 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도 널리 애송되고 있으며, 특히, 한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연문시는 근대시의 효시로서 문학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난고 김병연 선생은 안동김씨 휴암공파 제24대손으로, 1807년(순조 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화암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병연(炳淵),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畠)라 하였다. 그가 6세 때 선천 부사인 조부 김익순(益淳)이 1812년 홍경래 난 때 투항한 죄로 처형당하고, 조모 전주이씨는 광주외 관비로 축출되었으며, 부친은 남해로 귀향을 가게 되었을 때 선생은 형 병하(炳河)와 함께 노복 김성수의 등에 업혀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하였다.

후일 조부의 죄가 멸족에서 폐족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 후, 장수 황씨와 결혼하여 김삿갓면 와석리 어둔으로 이주하여 온둔생활을 하였다. 그는

22세 때 아들 학군을 낳고 24세에 차남 익군을 얻었으나, 형 병하에게 아들 학군을 입양시키고, 처자식을 남겨둔 채 방랑길을 떠났다. 그때부터 죽장에 삿갓을 쓰고 다녔으므로 김삿갓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난고 선생은 금강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며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해학적인 풍류시를 읊으며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방랑생활을 하였다. 김삿갓은 차남 익군이 여러 번 찾아와 영월 노루목으로 돌아가자는 간청을 물리치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1863년(철종 14년) 3월 29일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고 전라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마을 동편 산록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차남 익군이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으로 이장하였다.

영월군에서는 사선 난고 김삿갓의 문학세계와 예술의 혼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27회를 맞이하였다. '김삿갓문화제'는 향토사학자여 '김삿갓유적보존회'의 초대 회장인 정암 박영국 선생(1916~1994)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로 발족되었다. 선생의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1917년 9월 13일 주천면 용석리에서 부친 정





▲ 장영 박영국



▲ 장영 박영국선생 공적비 제막식(1999년)



▲ 김삿갓요역 개발 전(1989년)

양(政陽) 공과 모친 광산김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나 영월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영월화력발전소, 영월군농업협동조합장 등 공직에 재직하였다. 영월면의회 의장과 영월출판한 창화를 이끌어 '금마리 만세상 건립', '도원리 3공 제명석 복원', '생육신 조여비원'을 건립하였으며, 외룡리 고인돌 발견과 단종제를 창시하였고, '영월을 찾아서'라는 항토지를 발간하여 지역 항토사연구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난고 김병연 선생이 10송자인 노루목을 찾아오게 된 내력을 밝히고, 생가터와 묘비를 찾아냈다. 선생은 사재를 털어 '김삿갓유적보존회'를 조직하고 김삿갓이 방랑생활을 하며 읊었던 시를 찾아 '김삿갓의 유산'이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김삿갓 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치다가 1994년 5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영월군과 '김삿갓유적보존회'와 '영월문화원'에서는 그의 시대정신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기 위해 '난고 김삿갓학술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 왔다. 제1회 김삿갓문화제 때부터 시작된 이 학술대회는 전국 각 대학의 명망있는 교수와 항토사학자(鄕土史學者)들이 참여하여 그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방문화행사는 볼거리와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기록을 찾아 그 문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월에서는 해마다 발표된 옥고(玉稿)를 한데 모아 '김삿갓연구논총', 2002년 제1집인 '난고 김삿갓의 문학과 생애', 2009년 제2집 '인간 김병연을 기리는 마음', 2018년에는 제3집인 '김삿갓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연구논총을 출간하였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후세에 계승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김삿갓 문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학술연구자료를 통하여 난고 김삿갓 선생의 문학세계와 창작의 정신을 본받고 예술의 혼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고장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겠다.

또한 김삿갓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국한시백일강>은 1967년 단종문화제 한시공모를 시작으로 '내성한시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종문화제'와 '난고 김삿갓 문화제'에서 전국한시백일강을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후 2013년 제16회 김삿갓문화제 행사부터는 '조선조 영월과거대전' 장원시비(壯元詩碑)를 와석리 노루목에 설치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월 한시의 전통은 송순철선생께서 '내성한시회'를 만들어 춘추로 감일을 택하여 시회를 개최하여 '내성시집'을 발간하였고, 황자성 대표의 발간서책이 발간되어 복사·제판하여 지금까지 이어왔다. 몇 년 전까지도 20여 년간 문화원 문화학교 한시반에 많은 회원들이 꾸준히 한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활동을 했으나 이제는 고령으로 인한 한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영월 전통 한시의 명맥을 지역의 젊은 후학(後學)들이 동참하여 그 맥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제1회 한시공모 심사(왼쪽 두번째 황자성, 송순철 선생)



▲ 제1회 김삿갓문학세계 심포지엄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는 유명학자나 몇 명 소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구어낸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펼쳐갈 때 '김삿갓문화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월에서는 2001년에 '김삿갓문학상'이 제정되었다. 이 상은 천재시인 난고 김병연 선생의 시대정신과 해학과 풍자의 문학세계를 계승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제정한 문학상이다. 문학상 수상자로는 문효치, 오세영, 이재무, 이승훈, 이승훈, 이재무, 이동순 등 많은 시인들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향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상을 신설하여 엄순영 시인의 동시집 <동강에 살으리랴다>가 선정되었다.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되는 이곳 노루목 계곡은 시선(詩仙) 난고(蘭皐) 김병연(金炳淵) 선생이 잠든 묘소는 '유치영소형국(柳枝鶯巢影局)'으로 양백지간(兩白之間)에 있는 천하의 길지로 전국에서 찾는 문인과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1회 김삿갓문학큰잔치(1998년 10월 17일)



## 난고 이야기 : 김삿갓공간 ①

# 난고김삿갓박물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에 있는 김삿갓 유적지 안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난고(蘭皋) 김병연(金炳淵)의 생애와 문학작품은 물론 김병연의 발자취를 좇아 일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의 김삿갓 연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은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김병연이 전국을 떠돌다 세상을 떠난 김삿갓묘와 주거지가 있는 곳이다. 김삿갓묘는 1982년 영월의 향토사학자인 김영국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지명도 김삿갓면으로 바뀌었고, 김삿갓유적지가 조성되고 난고김삿갓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난고김삿갓박물관은 김병연의 일생과 김병연의 문학 작품을 전시, 소개하고 있다.

### 난고 김삿갓 박물관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Tel. 033-375-7700

[관람안내]

연중 9:00~18:00 / 월요일 휴관(공휴일 다음날 휴관)





### 제1 전시실 【방랑시인 김삿갓】

김삿갓의 정체성과 그의 일생 그리고 김삿갓 방랑의 시작지이자 종착지인 영월의 김삿갓 유적지를 발견한 박영국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책과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김삿갓의 방랑예정이 담긴 시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제2 전시실 【민중시인 김삿갓】

김삿갓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와 민중의 편에서 시를 썼던 김삿갓 시의 문학적 가치를 서책전시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상보기, 김삿갓 시 창작 국악듣기, 시 문구 직접 써보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김삿갓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느껴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음.

### 제3 전시실 【김삿갓 프로젝트】

김삿갓은 현재까지도 재해석, 재창조되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연속성을 지닌 '김삿갓'이라는 콘텐츠의 생명력을 지역작가의 작품과 김삿갓이 보았을 영월의 모습을 시간간을 넘나들며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월진경'영상을 통해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는 프로젝트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 난고 이야기 : 김삿갓공간 ②

# 김삿갓 유적지

난고 김삿갓 유적지는 영월군 노루목에 위치한 유적지이다. 이곳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준령의 북단과 남단에 위치하며, 산맥의 형상이 노루가 엮드려 있는 듯한 모습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불려오고 있다. 김삿갓 유적지 내에 흐르는 곡동천은 기암괴석 사이로 맑고 풍부한 수량이 넘치고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이자 천재 시인인 일명 김삿갓, 난고 김병연 묘소와 주거지가 있다. 그의 묘는 1982년 영월의 향토사학자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문화 예술 혼을 추모하고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김삿갓 계곡에서는 98년도부터 매년 10월에 [김삿갓문화제]가 열린다. 또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적지 내 조경 및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관광지로 탈바꿈 하였으며 2003년 10월 [난고김삿갓문화관]이 개관되어 김삿갓의 문학세계를 한곳에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 김삿갓 묘역

묘 앞에서 왼쪽은 태백산 끝자락이며, 소백산 시발점인 이곳은 양백지간에 유지영소형국이며 정감록에 기록된 십승지 중 한곳으로 에너지가 함축된 곳이다.



## 김삿갓 집터

김삿갓이 방랑을 떠나기 전까지 살던 곳으로 그 시절 허기진 배고픔을 함께 나눈 200년된 고염나무와 돌배나무, 250년된 밤나무가 주거지를 지키고 있다.

선현정부표준영정 제89호 김병연

2012년도, 작가 왕형렬, 경기도양주시 제작, 화암사지박물관 소장

- 김삿갓 정부 표준영정(지정번호, 89호) 사용은 경기도 양주시의 사용승인에 의함.

갓

金笠



난고

시선 詩仙

# 김삿갓

金炳淵

김병연

조선후기의 방랑시인

본명 김명연(金炳淵 1807~1863), 자 성심(性深), 호 난고(蘭皋).

1811년 순조11 조선의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가문의 자손으로 출생했다. 할아버지 김익순이 흉경래의 난을 막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집안이 몰락하자 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이라는 멸시를 피해 어머니와 함께 영월 삼육리에 정착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자 학업에 정진하였지만 20세 무렵 과거를 포기하고 영월을 떠나 방랑을 시작했다. 1863년 철종14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에서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 했다. 이후 아들 익균이 김삿갓의 묘를 영월(하동면 와석리 노루목)로 이장하였으며, 영월은 김삿갓의 방랑의 시작지이자 종착지가 되었다.

동운처럼 떠도는 김병연의 삿갓 시인 김삿갓이 쓰고 있는 삿갓은 하늘을 막고 비바람을 막고 세상을 막고서 살아가는 도구니 그에게는 삿갓이 인생이자 운명이었다.

蘭皋



# 김삿갓 문화제



## 개최기간

매년 10월 초순

## 장소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 유원지 일원

## 주요 프로그램

백일장, 고유제, 헌다례,  
풍자와 해학의 김삿갓 길 걷기,  
난고 선생 작품세계 학술심포지엄,  
김삿갓과 문학인의 만남, 공연 등



영월의 4대 축제 중 하나인 김삿갓 문화제는 매년 10월 초순에 김삿갓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와 축제행사,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 향토음식과 먹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방랑시인인 난고 김병연 선생의 시대정신과 문호예술의 혼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축제가 개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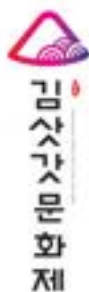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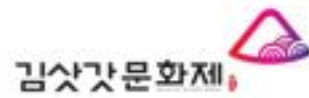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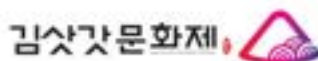






# 김삿갓문화제

KIM SAT GAT CULTURAL FESTIVAL



영월군의 대표 문화제인 김삿갓문화제의 이미지를 전통적 모티브인 구름문양과 삿갓, 산의 형상을 조화시켜 간결하면서도 주목성이 높게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 김삿갓의 풍류와 해학, 방랑의 삶에 대한 그의 철학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디자인 하였습니다. 적용 서체와 색채는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하여 고딕형 타이포와 색채를 적용하여 차별화를 부각하였습니다.



# 김삿갓

## CHARACTER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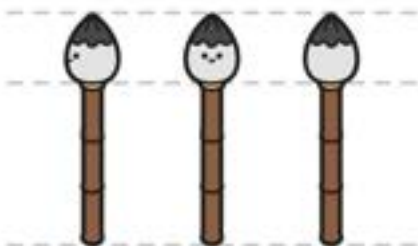
방랑시인 난고 김병연 선생의 모습을 상징성을 담아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굵조 및 활용에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제작하였으며  
귀엽고 친근하게 디자인하여 문화제와 함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 Basic Action

Turn around



## Color Guide



- 갈대** 자연, 방랑생활의 쓸쓸함
- 보집** 돌돌 말린 종이, 시인의 이미지
- 술병** 재치, 삶, 기쁨과 슬픔, 서민들의 애환을 향한 위로
- 지팡이** 김삿갓 시에 등장하는 지팡이를 '뿔' 모양으로 디자인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문화예술혼 상징







# 김삿갓 시 속의 정취를 나누다

장원급제, 이에 담긴 마음이라 하면 첫째는 입신양명이요, 둘째는 관직에 나아가 나라와 백성에 마음을 다 하고자 할 일 테다. 최인의 자손이며, 조부를 육보인 최척감에 김병연이란 이름도 버리고 삿갓으로 하늘을 가린 채 평생을 방랑하며 길을 떠난 사람. 김병연에게 관직은 더 이상 꿀 수 없는 꿈이었다. 김삿갓은 무거운 하늘을 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몇 줄의 시구로 양반들의 잘못된 생활상을 풍자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읊었다.

전국을 돌며 이상을 찾아 방랑하던 그가 생을 다하여 다시 돌아온 영월의 김삿갓면. 물 맑고 산이 깊어 아름다운 그 곳에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잠재우고 문학적 색채가 산을 뒤덮는 가을의 대표 문화제 제27회 김삿갓 문화제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문화가들과 함께 그의 꿈과 이상의 가을 길을 걸어보며 시 속의 정취를 나누자.

김삿갓 - 문화 - 교류

## 풍류를 좀 아는 당신의 3일

한 여름 점심 식사 후 나른함에 잠이 몰려오고 자극적인 여름의 맛을 별걱별걱 들이키며 뜨거운 하루를 버티며 지나간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 에어컨의 차디 찬 바람이 아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과 밤이 한 치의 다름없는 추분의 하루 전, "풍류를 안다" 하는 나그네들이 바람에 이끌려 모이는 곳. 영월의 김삿갓면에서 제27회 김삿갓문화제(2024.10.11.금~13.일)가 열렸다.







딱 하루만 이루어지는 주요 행사인 추모제례인 제향과 헌다례는 김삿갓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이다. 매년 의복을 정제하고 정중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올리는 추모 제례는 문화제 전체의 의미를 담는다.

개막식에는 제향과 더불어 문학적 업적 계승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김삿갓 문학상을 시상했다. 전국의 사전 공모와 엄중한 심사를 통해 김삿갓의 뒤를 잇는 문학가들을 가려 내며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방랑의 계기가 되었던 지방 향시를 재현한 조선 시대과거대전과 삿갓과 도포, 지팡이를 갖추고 걷는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는 김삿갓면 일대를 조선시대의 한 장면으로 연출하며 참여자들과 관람객들에게 공감각적인 심상을 불러일으켰다.

형식은 종이처럼 온화하고 정적이되 칼날 같은 붓처럼 대조되는 민상을 심어준, 김삿갓이 허공을 종이 삼아 술술 써 내려간 시를 그 자리에서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듯한 회화대회가 현장에서 펼쳐져 진풍경을 연출했다. 김삿갓 문학관 앞에는 전국을 방랑한 방랑 시인의 뒤를 쫓아 전국에서 공모한 캘리그래피와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김삿갓면의 골짜기는 더 이상 김병연 일가의 온둔의 골짜기가 아닌 전국의 예술이 한자리에 모인 장소로 변모한다. 글 속에 저마다의 김삿갓을 품고 모여 경쟁하는 일반·학생백일장과 김삿갓 유원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사생대회, 그의 해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만화 그리기 대회가 공모로 진행되었다. 두 눈만으로도 방랑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해줄 김삿갓 집터까지 걷는 김삿갓 풍자와 해학의 길



걷기로 영월의 성령 다가온 자연을 한껏 즐길 수 있었으며, 거닐다 숨을 돌리며 한 글자 적어 보낼 수 있도록 외씨버선길의 느린 우체통이 마련되어 다음 해에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갈 나와 그 누군가에게 24 년도의 영월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아 전할 수 있다.

김삿갓 문화제는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간 김삿갓면 김삿갓 유적지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행사 이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는 풍류 가득한 행사가 되었다.





# 김삿갓 시 속의 정취를 나누다

KIM SAT GAT CULTURAL FESTIVAL

제 27회 김삿갓 문화제

2024  
10. 11금 - 10. 13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 일원



김삿갓 - 문화 - 교류

## 별을 만나다 : 제20회 김삿갓문학상

# 이제 종아리는 안 맞게 되겠지요.

해학과 풍자의 시인 난고 김병연 김삿갓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수상자로 의견을 모아 주신 것은 아마 난고 선생의 뜻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대구 시가 어느 점에서 익살과 풍류의 시인 김삿갓과 유사한가?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낸 나의 두 번째 시집  
[겨울기도] 해설에서 평론가 서울대 김주연 교수는 청대구 시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가 재밌다  
유머러스하다 둘째가 깨끗한 동심이요 세 번째가 자기연민이라 했습니다.



마누라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나와 헤어지는 여자  
내 머릿속 내 가슴속 내 꿈속까지 들어와  
온통 나를 다 차지하는 단 한사람의 여자



# 시인 정대구

그리고 보니 나도 모르고 쓴 내 시의 특성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김삿갓 시 또한 이러한 요소가 편편이 들어 있음을 늦은 나이에 김삿갓 시를 연구하면서 나와 통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과제시에 천재적 실력자이면서도 과거시험을 못 보는 불우한 자신을 연민(憐愍)하면서 비장한 세태를 해학과 풍자 유머와 익살로 세상을 떠든 게 아닐까요?

몇 해 전 내 친구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내 네 줄 시집을 받고서 쓴 독후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지요. 정대구 시는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지하다고 삼무(三無) 시인이라고.

처음엔 어리둥절했지요. 알고 보니 그게 무식(無識)꾸밈이 없고 무모(無謀) 잔꾀가 없는 어린애와 같고 서른 몇 번째 시집을 냈으니 무지(無知)하게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시를 쓴다는 뜻이라고 돌려대던군요. 칭찬이라고 합니다. 하하! 어쨌든 모자라는 정대구에게 큰상을 주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재삼 감사의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앞서 졸시집 「봄」을 펴내어 상을 받도록 애 써주신 도서출판 문창길 대표께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소설가 이성아

김삿갓 - 문화 - 교류

## 별을 만나다

# 내가 발 딛고 선 곳이,

언젠가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선 곳이, 바로 그 이름들 위라는 걸, 내가 살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목숨에 빚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제게 김삿갓이란 이름은 어린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그저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받게 된 지금은, 생생하게 현실 세계에 발 딛었던 시인으로, 시대와 불화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던 대선배로서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개인의 안위나 명달보다는 존재의 품격과 자존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 김병언의 문학세계를 이어받고 기억하겠습니다. 외진 곳에서 외롭게 애면글면 소설을 쓰는 제게 김삿갓문학상은, 너무나 큰 격려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소설 <유대인극장> 중에서

연극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는 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저기 서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벽을 타고 오르는 미친 여자가 언니 같아서, 마치 조리돌림이라도 당하듯이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녔다. 방제복을 입은 이들이 출현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다. 내가 폴란드 할머니와 무엇이 다른가 싶은 자책이 명치를 찢어댔다. 어린 나는 무엇에 감염되었던 걸까. 어둠 속 불빛 아래서 있으려니 여전히 유대인극장에 있는 것 같았다.

#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졸시를 엮은 시집 『밥그릇 무겁다』를 제20회 김삿갓문학상 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협 영월지부, 영월동강문학회 홍성래 회장님을 비롯한 문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껏 한 일 중에서 시 공부를 한 것이 제일 잘한 것이다.”라는 말로 응원을 보내준 아내 권순미 씨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시인이 철학자나 사상가는 아니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이 마치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른 마음으로 무장하고 시위를 당기고 궁극의 목표가 과녁으로 서 있다고 해도, 과녁으로 날아

가는 화살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정도와 범위가 방향과 거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화살은 과녁에 꽂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며 과녁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체시의 시성 난고 김병연 선생은 노마드 시인이었습니다. 김삿갓의 삶은 시대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월의 아름다움과 민초들의 삶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송구하지만 살아보니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었습니다.

졸시를 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시인 엄의현



엄의현 시집 | 날아갈기책시집 | 24

밥그릇  
무겁다



김삿갓 - 문화 - 교류

## 김삿갓을 기리다 : 김삿갓 제향

1998년부터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27회가 되었고, 난고 김삿갓선생의 탄생 2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김삿갓문화제의 이튿날, 김삿갓을 기리는 제향을 봉행한다. 제관이 입장하고 제향봉황에 이어서 헌다례 봉행이 진행된다.









김삿갓 - 문화 - 교류

김삿갓을 기린다 : 김삿갓 제향

## 함께라는 공감의 나이테

영월다도회

제2회 때부터 서울가예원에 소속되어 현대를 시작했습니다. 영월다도회를 2006년 9월 18일에 발족하여 2007년부터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월다도회에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인의 삶을 살아 간 난고 김삿갓을 추모하는 현대 행사에 어인 14회를 참여 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참여한 의식을 통해 마음을 다하는 여정과 차로 고인을 기리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담긴 물을 끓이고 정성으로 차를 우려서 해마다 회원들과 함께 추모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낭만가객 김삿갓의 시정을 새기고, 영월지역의 문화적 전통계승에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월이 난고의 고귀한 문학적 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터전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사람은 어울림 속에서 함께라는 공감으로 나이테를 그려 갑니다. 영월다도회에서는 단종문화제와 김삿갓문화 제의 현대와 다문화 가정 전통예절교육지도, 청소년 국제 교류 다도예절교육, 유교문화관광 다도예절수업 등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울림을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교류로 전통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삿갓 - 문화 - 교류

## 삿갓을 쓰다 :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



김병면이 삿갓을 쓰게 된 원인은

한시백일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있다.

김삿갓문화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행사는  
조선시대 영월과거대전이다.

실제 조선시대 행해지던 과거시험을 재현하여,

녹명 및 입문-부사입장-시제하차-계시-과거시험(한시백일장)

순으로 진행이 된다. 과거시험이 끝나면 이어서 심사가 바로

이루어지며,오후에 방방례 및 은영연(시상)까지 완료해야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김병연(金炳淵)[1807~1863]은 6세였을 때 하인 김성수(金聖洙)의 구원을 받아 형 김병하(金炳河)와 함께 황해도 곡산(谷山)으로 파신하여 숨어 지냈다. 후에 시만을 받고 과거에 응시하여 김익순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답을 적어 급제하였다. 그러나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벼슬을 버리고 20세 무렵부터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항상 큰 삿갓을 쓰고 다녔 김삿갓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김병연 [金炳淵]



〈김병연설화〉는 그가 스무 살 때 강원도 영월군 동한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백일장에서 나온 시제(詩題)가 홍경래의 난 때 투항한 조부 선천부사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나중에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인 것을 알고부터 김병연은 조상을 욕한 죄와 패족의 후예이므로 벼슬길이 막혀 있음을 알고는 방랑길에 들어섰다. 그로부터 한일곱 살로 죽을 때까지 김병연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설화는 전개된다. 설화는 거의 그가 지은 한시(漢詩)를 중심으로 두고 배경설화로서의 양상을 보인다. 삿갓을 쓰고 다녔으므로 설화에서는 김병연을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으로 부른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김병연 [金炳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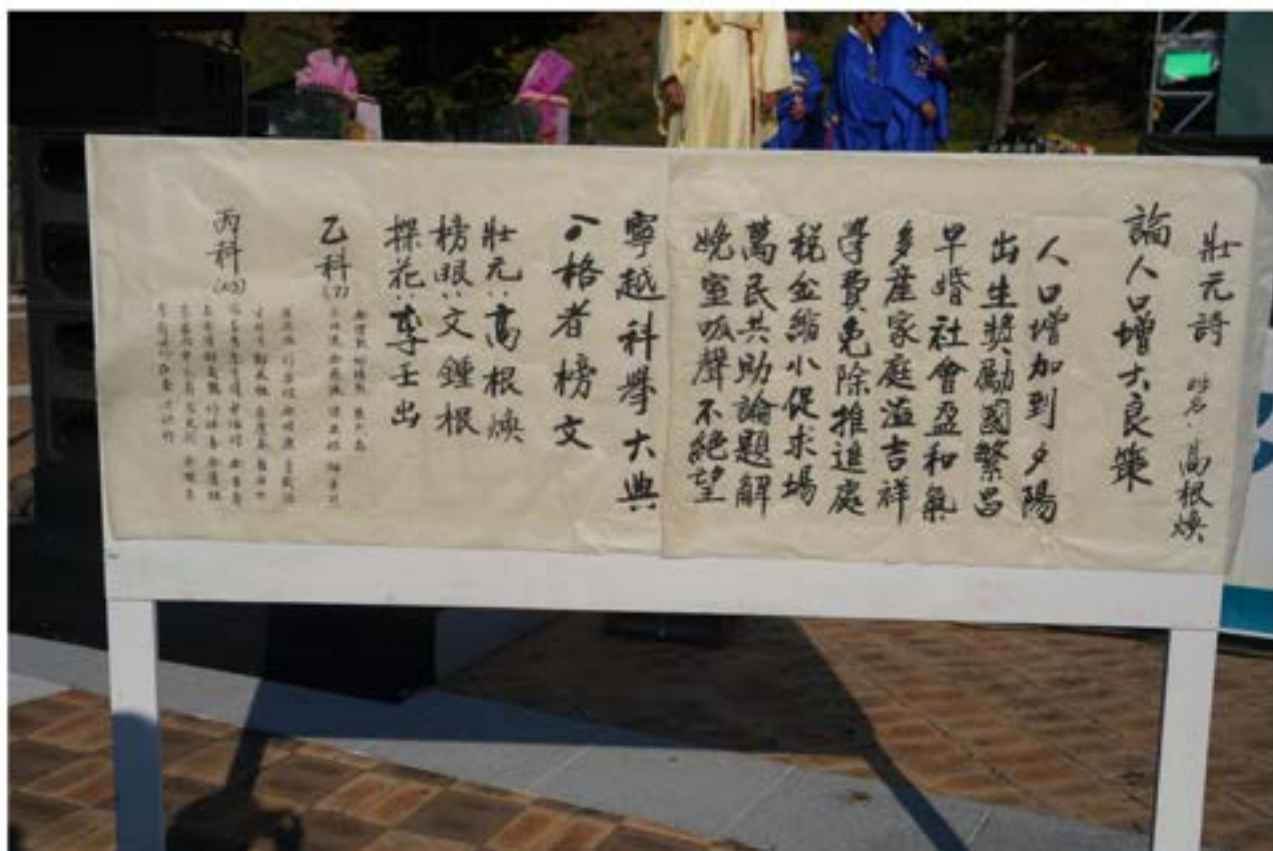




장 원 : 高 根 煥

雅 號 : 野 隱

한시문화를 부흥하고, 조선시대 과거 재현을 목도하기 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평상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 그 심각함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금번 과거대전의 시제 중 "인구증대의 망책"이라는 적합한 논제로 작시 하였고 감사하게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깊은 김삿갓 문화제가 더욱 발전하고, 과거대전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 論人口增大良策

人口增加到夕陽 인구증가도석양 인구증가가 석양에 이르르니

出生獎勵國繁昌 출생장려국번창 출생을 장려하여 나라를 번창하게 하자

早婚社會盈和氣 조혼사회영화기 조혼하는 사회엔 화기가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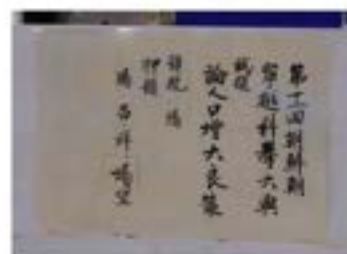
多產家庭溢吉祥 다산가정일길상 다산하는 가정엔 길상이 넘치네

學費免除推進處 학비면제추진처 학비를 면제하려고 추진하는 곳이요

税金縮小促求場 세금축소촉구장 세금을 축소함을 추구하는 장이네

萬民共助論題解 만민공조논제해 만민이 공조하여 논제가 풀리고

婉室呱聲不絶望 만실고성부절망 만실에는 아기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제63회 한국문학심포지엄]

일시\_ 2024년 10월 11일 13시 30분

장소\_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대회의실

김삿갓 - 문화 - 교류

김삿갓을 만나다 ① 제63회 한국문학심포지엄

# 김병연 문학에 나타난 서사성

해마다 영월에서 개최하는 김삿갓문화제는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축제이기에 김병연 문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큰 변곡점을 맞는다. 김병연 문학이 시문학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성찰로 바라본 그의 사유공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하여, 김병연 문학사상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평화로 통섭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의 문학을 발굴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김삿갓 문학의 서사성 연구를 통한, 김삿갓 문학의 재해석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김성달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계간『문학저널』 편집주간 등. 소설집 『한봉기와 달』, 『낙타의 시간』, 『이서간디』, 연작소설집 『미결인간』, 평론집 『한국소설을 읽다』 외 다수, 조연현문학상, 고양행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작가상, 탄리문학상, 아시아문학상 등 수상.

물의 성장이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서사적 구조는 시적·공간·끝의 구조를 갖고 물결이 명확하게 전개되도록 하는 바 그런 서사적 전개는 갈등과 해결 과정을 포함하여 독자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김삿갓 서사적 시들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현대의 서사시는 어떤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 곧 역사적 사건, 사회적 갈등,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 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목적성을 추구하면서 시대적 역사적 사실들을 새롭게 상기시키고 일으켜 세워 사회적 이슈를 도모코자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언어유희를 통해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 심성까지 흔들어 놓은 해학적 시들도 있다. 김삿갓의 시들은 이런 작금의 현대 시가 추구하는 현대적 의미를 오래 전에 펼쳐내었고 감당해 낸 실험적 시의 선도자라 할 수 있다. 서사시는 인간 삶을 이야기 하는 중요한 형식으로 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적으로 갈등과 교훈을 주는 것으로 김삿갓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매력도 바로 그런데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문학적 서사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설은 일련의 사건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김삿갓은 시로서 역시 어떤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냈는데 바로 소설과 같은 서사적 형식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제시되어 다분히 소설적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최근 경향은 시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수필로 말 하여서 수필이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문학 형식으로 21세기의 문학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김삿갓 시로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특히 자기 삶의 현상들을 수필이란 장르가 그때도 있었다면 필히 수필로 표현해 낼 수도 있다. 곧 김삿갓 김병연이 수필 장르로 쓸만한 이야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한시 형태로 써서 함의적 표현으로 함축 내지 압축하여 수필적으로 의미화·주제화·형상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김삿갓의 시는 의미로 풀면 서사가 있는 수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소설에선 작가가 마치 화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독자가 마치 청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형태이지만 김삿갓의 시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 이야기들을 사실적 화자와 청자가 대구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소설적 허구의 서사가 아닌

진실적 수필의 서사라는 점이다. 내가 말하고 너는 듣는, 내가 듣고 너는 말하는 직접적 서사로 진행된다는 말이다.

그래면 수필에도 묘사를 많이 쓴다. 요즘 수필에선 묘사문과 서술문을 기본으로 해서 글을 쓴다. 말하자면 수필도 서사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이 되는 것이 독자에게 다가가기 쉽고 독자의 감응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공감도가 없으면 그 글을 누가 읽겠는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글쓰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병연 김삿갓의 시들은 그런 공감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직접 대상을 위한 주고받음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100%가 될 수밖에 없다. 김삿갓은 서사적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비유는 때로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져온다.

김병연 김삿갓의 시들은 그가 전국을 방랑하며 겪은 당시의 세태와 생활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묘사되면서 그만이 아닌 역시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에 자신의 절망과 아픔과 분노까지가 유머와 위트의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뿐 아니라 김병연은 한시에 한글 음을 달아 상대를 골려주는 해학도 즐겼는데 이는 한자 외의 문자를 쓰는 평민들도 쉽게 알아들도록 하여 세속 규범에 거침없는 풍류로 즐기면서 시대적 질곡에 저항하며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백성도 위로코자 함이었을 것이다. 곧 인간 삶의 보편성에도 주목한 것으로 부자와 권세가는 조롱하고 백성들의 설움과 아픔에는 함께하는 민중 시인으로 삶의 문학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혜로운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교훈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김삿갓의 이런 파격시는 현대 자유 시적 요소를 다분히 품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요즘의 자유시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의 한 많은 삶만큼의 각종 서사를 시 속에 품고 있는 것도 서정과 서사를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시 속에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담는 형식으로 서사적 시를 썼다고 보는 것이다.

수필가인 독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문학이 갖는 그리고 그의 문학에 나타난 서사성 등을 독자의 입장에서 읽고 생각한 것을 펼친 것이라는 점을 해량하시어 잘못 되었거나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수정하고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그런 속에서 문학은 발전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기 때문이다.

\*최완현 수필가·문학평론가. 「한국수필」에 수필, 「조선문학」에 문학평론 등단. (사)한국수필가협회 제7대 이사장·(사)한국문인협회 제27대 부이사장 역임. (사)국제한국본부·(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사)범우문화재단 이사. 수필집 「날마다 좋은 날」, 「어떤 숲의 전설」 등 19권, 문학평론집(창작과 비평의 수필쓰기) 등 2권, 한국수필문학상·펜문학상·산국문학상대상·조현현문학상·한국문학상 등 수상.



김삿갓 - 문화 - 교류

## 김삿갓을 만나다 ② 김삿갓학술심포지엄

해학과 풍자로 재치가 넘치는 시선 난고 김삿갓의 문학세계와 창작의 정신을 본받고 예술의 혼을 계승·발전하고자 1998년부터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이 선생의 탄생 217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김삿갓문화제 행사기간에 김삿갓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영월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여 지역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영월이 지닌 지식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월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삿갓학술심포지엄을 매 해 개최하고 있다.



[김삿갓학술심포지엄]

일시\_ 2024년 10월 12일 14시 00분

장소\_ 김삿갓문화관 1층

# 김병연의 삶이 빚어낸 문학

최원현(수필가·한국문학 전문위원)

한국문학사엔 수많은 작가가 회자되지만 김병연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일컬어지고 인식되고 있다. 해서 그에 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의 진면목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특히 그의 문학적 특성이 특이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삶 자체도 특별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말무하다 하겠다. 무엇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고 있는 것일까. 그의 문학과 삶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데 그의 문학이 삶이고 삶이 곧 문학이란 동식이 성립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도 그만의 삶과 문학엔 분명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병연은 사적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시를 위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이 시로라도 뿔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곧 그런 간난(艱難)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서 그의 시들이 파격적인 형식이고 자유롭게 표현된 개성적인 시 체계를 구축한 생활시인이면서 인간 풍경을 노래한 시인이라 말하지만 김병연 김삿갓이라는 인간 삶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그가 택할 수 있었던 표현 방식이 거기까지였기에 그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그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제한된 표현방식 속에서도 그만의 더 크고 넓고 깊은 생각,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들을 담아낸 그 시적 내면에는 소설보다도 더 길고 많은 이야기가 함축·축약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한시 형태를 띠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자유로운 율격과 형식으로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곧 김병연 김삿갓의 시는 감성적 정서를 품는 서정적이기보다는 급박한 삶의 애환이 정황으로 그대로 담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적 서사의 시라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그만의 특유한 해학과 풍자가 들어있는 욕설로 세상을 깨

치는가 하면, 탁월한 순발력과 시적(詩作) 능력으로 세상을 바웃기도 하며, 더러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자신을 돌아보고 탄식하는가 하면, 방랑자로서 어릴 수 없이 그리워해야 할 고향과 가족에 대한 나그네로서의 향수를 풀어내기도 했고, 생의 말년에는 스스로 탄식하고 마는 인생의 한 면도 보여주고 있다.

김병연의 시 세계를 바로 방향을 시작한 후 10년 동안 창작한 작품과 그 이후에 창작된 작품으로 구분 짓기도 하는데 방향사작 후 10년은 그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그로 인한 좌절감 속에서 방향을 하는 동안의 고뇌와 좌절감이 더 컸을 것이고, 그 이후는 어느 정도 그런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비교적 여유를 가지면서 방향을 했기에 그의 기저가 변찍이는 풍자와 해학의 특징적인 연모가 보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①삼천리를 유랑하는 내용과 ②거기서 만나고 보고 느낀 인심과 인정, ③맞이하고 겪은 자연과 계절, ④강산과 누정(樓亭) ⑤삶에서 부딪친 많은 일과 정, 인연들, 인생의 무상함을 들 수 있고, 특히 ⑥금강산과 관련한 시정(詩情)들이 풍성히 표출되고 있으며, ⑦정물(靜物)과 動物)에 관한 시들도 많은 것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겐 시적 재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는 왜 이런 시들을 썼을까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안정된 창작공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직면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생각을 즉시적으로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적 시이다 보니 안팎으로 자신의 목적성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가능한 치명적으로 전달하고자 함이었으니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그런 목적을 담은 서사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서사적 시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복잡한 사건 곧 전쟁, 사랑, 배신, 복수 등 다양한 주제를 담으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해당 인

# 서사적 원천으로서의 역사적 '빈틈'

장두영(문화평론가·아주대 교수)

김병연의 문학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창작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지나치게 소략하다. 김병연은 조선시대 시인 중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는 압도적이어서, 난고 김병연이라면 몰라도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이름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보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그동안 대중가요, 영화, 동요, 동화, 광고 등에서 김삿갓의 존재와 그의 시가 직 간접적으로 술하게 언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시 작품은 30여 년간에 걸친 방랑을 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 흩뿌려진 탓에 남아 있는 작품의 수는 250편 남짓 시집 한 권 분량에 불과하다. 그의 작품은 대개 구전과 필사를 반복하면서 변형과 왜곡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김삿갓의 인기로 영합하는 '김병현' 같은 아류나 '가짜 김삿갓' 등의 등장으로 인해 원본 확정 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거나 어느 한곳에 오래 머물러서 쌓인 행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하는 그의 일대기에 관한 정보 역시 지극히 제한적이다. 요컨대 김병연의 문학은 '방랑시인'이라는 작가의 개성적 내력과 관련하여 세간의 유명한 정도에 반비례하여 작품론과 작가론의 측면에는 수많은 '빈틈'이 존재한다.

김병연의 문학에서 이러한 '빈틈'은 실증적이고 체계적 비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 빈틈을 매우기 위해 동원되는 상상력의 작동으로 인해 풍부한 서사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는 김삿갓의 시 작품에 창작 과정에 얽힌 일화가 따라붙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심성이 고약한 훈장이나 부자, 승려를 향한 통쾌한 복수로, 또 대로는 우연히 만난 여인과의 성적 접촉이나 콧대 높은 기녀와의 로맨스로 펼쳐지는 다양한 일화는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꿈과 욕망이 개입하여 윤색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물론 그러한 여러 일화는 단순히 구전이라는 의사소통 과정

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변형과 왜곡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김삿갓의 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차원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유분방한 방랑시인'이라는 텍스트 외부적 요소가 유독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서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있었던 일화가 전승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이 개입함으로써 일부 왜곡하거나 윤색하고 심지어 허구적으로 창작하기도 한 결과로 그러한 일화가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병연 문학이 내포한 서사성은 여러 소설가에 의해 주목되어 작품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얼핏 살펴봐도 정비석, 고은, 이문열, 황현철, 이정 등이 쓴 소설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넓게는 역사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 작품은 김병연이라는 실존 인물의 행적과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다루면서도 작자의 관심이나 관점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물의 산출로 이어졌다. 이것은 구비 전승과정에서 김병연 문학을 둘러싼 텍스트 외부적 요소가 다양한 꿈과 욕망의 상상력에 의해 생성되었던 것과도 닮았다. 또한 김병연의 문학에 내재된 작품론과 작가론에 관한 수많은 '빈틈'이 상상력의 제한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의 활발한 발산에 도움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빈틈'을 작가의 기법과 상상력을 채우려는 시도는 정비석의 「소설 김삿갓」의 특징이다. 구체적 인물 형상화, 생생한 장면 묘사, 그럴듯한 상황 설정, 상식적인 수준의 유교적 세계관의 활용 등의 여러 소설적 기법으로 개연성에 바탕을 둔 스토리의 전개에 공을 들여서 기존에 전승되는 설화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문열의 「시인」에서는 '빈틈'이 많은 설화와 통념에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상상력이 특징적이다. 이때 상상력의 작동을 위해 활용한 것은 인물 내면에 대한 분석이며,



그 결과 기존의 설화적 통설이 제시하는 김병연에 관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인간 김병연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김병연과 그의 문학에 내재한 한과 비극성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창의 『바람처럼 흐르는 구름처럼』은 '빈틈'이 많은 설화의 한계를 넘어 김병연의 실제 모습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 기록이나 학술 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김병연의 행적을 재구성 하였다. 이것은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최대한 빈틈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상상력의 성패는 역사와 허구의 균형 잡기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세 작품은 김병연과 그의 문학을 어떻게 소설화하는지, 김병연의 행적에 들어 있는 수많은 '빈틈'에 각각의 작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 방식을 비교해보는 작업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작품이 보여준 각기 상이한 상상력의 작동방식은 김병연의 삶과 문학이 지닌 풍부한 서사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채워지고 꼭 짜여진 것이 아니라 빈틈이 많은 대상이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릇 전승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꿈과 욕망이 섞여 들게 마련이고 어떤 측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병연과 그의 문학에 관한 수많은 역사적 빈틈은 다양한 서사적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과 참신한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김병연 소설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장두영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9년 「문학사상」 신인상 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평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 「뿌리를 보는 시간」 등, 저서 「열성적 소설의 내적 형식과 탈식민주의성」, 「소통의 상상력」 등이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삿갓, 그의 삶이 곧 서사

김성달(소설가·한국문학 이사)

김삿갓 하면 우리는 재치와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그의 시를 떠올린다. 또한 인생무상을 체득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평생 결식으로 세상을 편력하여 남긴 그의 작품에서는 모든 인간사를 초월한 초인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그 작가의 생활을 이해하지 않고 그의 작품 세계를 논할 수가 없다. 김삿갓이 만약 조정의 관원으로 평생을 마쳤다면 오늘날 그의 문학이 우리에게 이처럼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 서민들은 천재 시인이며 제도권에서 벗어난 일탈자이며 방랑자로 일생을 살았던 김삿갓의 시에 몰고 웃었다. 해학과 서사, 관조적 허무와 격물 정신으로 구성된 그의 시는 부정과 불의를 만나면 해학은 풍자와 조소의 칼이 되고, 절경과 가인을 만나면 술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 또한 민중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되지만, 사물을 앞에 두었을 때는 헛살이 되고 바람이 되었다. 김삿갓의 자유로운 영혼은 시의 소재나 형식에서 규범과 탈 규범을 넘나들었고, 한시의 전통적 방식을 거침없이 해체해서 파격을 만들었다. 이런 그의 모습과 삶이 그의 문학의 서사성을 이룬다. 그가 남긴 수많은 한시는 한문으로 쓴 운문 형식의 글이다. 흔히 한시는 어렵다는 거부감과 현실 살과의 괴리 등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김삿갓 문학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 서사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서사 연구자들은 인간을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인간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김삿갓은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한 문학가였다. 그의 문학은 세상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며,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일찍이 장폴 사르트르(J. Sartre)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꾼'이라고 말

한 적이 있으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김삿갓은 세상 온갖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항상 세상을 향해 이야기 했다. 그것이 그의 문학이었다. 그의 문학 소재는 일반적인 한시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의 모든 것에 두루 머물고 있다. 그렇기에 내 것만 보고 남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울타리의 자폐성을 훌쩍 뛰어넘은 큰 서사문학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산천과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과, 살아온 역사 속에서 숨 쉬고 있는 정신이 그의 문학이다. 그의 문학은 조선의 양반 사회라는 공간 인식과 고대로부터 겪어온 백성들의 수난사적인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인간을 우선시하는 서사를 지니고 있다.

서사와 유사한 용어로 줄거리(plot)가 있다. 줄거리란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며, 서사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서 간의 연결로서, 논리적이거나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흥미롭게도 김삿갓 문학에는 서사 즉 줄거리가 있고, 그것은 일명 할리우드효과라고 부를 정도로 재미있다. 그래서 김삿갓의 시와 문학을 좁은 의미의 한시 범위 설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자신의 삶이 되도록 바꾸면서 전국을 주유한 김삿갓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이 있다. 문제는 그 부끄러움을 가슴으로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평생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걸인으로, 자연 시인으로, 인생 시인으로, 생활 시인으로, 민중 시인으로, 풍자 시인으로, 역사 시인으로 선 시인으로 살다 간 김삿갓은 그의 삶이 곧 서사이다. 아쉽게도 김삿갓은 그의 손으로 직접 남긴 시집은 없지만 오랜 세월 꾸준히 발굴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의 문학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이다.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문학을 통해 과거의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 김삿갓 '시대를 역사하다'

배상현(전 신라대학교 교수)

19세기를 살다간 김삿갓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그동안 다각도로 관심이 기울진 것으로 파악된다. 1) 그러나 그의 시를 "역사시"로서 접근하려는 노력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기울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관한 기록과 스스로 남긴 자취에 비추어 아직 그의 시는 조명되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며 그 경험을 작품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시대를 역사한' 인물로 평가해 볼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작은 시도로 「路上見乞人屍」를 사례로 사각의 배경에 유의해 보고자한다.

김삿갓이라는 인물과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였다. 이는 1926년 천도교 잡지 「개벽」 편집부가 그의 시문과 전기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2)

여기서는 수집의 목적이 '조선은 반만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고, '一冊의 가치있는 遺書가 없다'고 개탄하면서 '이천만 민족의 예술의 역사적 가원'과 '사상발전의 과정'을 예증하려 함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大詩豪인 김선생[김삿갓]의 시문을 모집한다고 해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개벽」 편집부가 진행한 김삿갓에 대한 자료 수집은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1차 종료일을 거쳐 7월까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일을 추진함에는 창간 동인인 車相璠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벽사에서 편집장을 맡기도 한 차상찬은 이 일의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6년 2월 「중외일보」에 「불우 시인 열전」과 「불우 시인 김삿갓」을 발표한 바 있고, 「조선 4천 년 비사」를 재발행하였다. 「중외일보」의 부기에서는

모아진 김삿갓 시가 300수 가량이며, 불완한 장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상찬은 이후 김삿갓 시를 자세히 발표하지 않았다. 4)

한편, 당시 개벽사가 김삿갓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는 사업을 전개한 이면에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경제 침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이해는 「개벽」 제30호에 실린 권두언에서 통계를 근거로 일제가 주장하는 조선인 발전설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941년 「대중보판」을 간행하면서는 1. 通俗詩人 民衆詩人, 2. 人生詩人 生活詩人, 3. 乞人詩人 貧窮詩人, 4. 放浪詩人, 5. 風流詩人, 6. 超脫詩人, 7. 諷刺詩人 滑稽詩人, 8. 慷慨詩人, 9. 破格詩人 諍文詩人, 10. 科詩人 歷史詩人, 11. 大文章家로, 모두 11개 항목으로 편제하고 있다. 16)

그리고 김립을 역사시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는 '김립의 본질은 科詩에 있다.'하고, '이 科詩는 大概가 歷史의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歷史詩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하였다. 17)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논문을 통해 임호민도 그를 역사시인으로 규정하였다. 김삿갓이 19세기 조선 사회에 만연되었던 서울과 지방 양반들의 작태, 그들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철저한 자기 보호 의식, 그리고 관권 주도의 지배층에 대한 비호와 관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앙과 지방의 지배층임을 과시하면서 관권과 밀착하여 온갖 부조리를 저지르는 다수의 지배층들에 대해 직설적이면서도 우회적인 시적 문구를 사용한 비판적 시들을 많이 남겼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자신이 직접 현장에 뛰어든 역사하는



은은히 들려오는 옥탁과 독경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며 삼매경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구룡치수의 '九'를 입 구(口)자로 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고성지역은 산, 바다, 호수가 유명하다.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남겼다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1831년 25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 가는 길에 석호(화진포)에서 쓴 8수가 시로 승화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어 이번『영월학 심포지엄』에 소개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기쁘다. 또한 2015년 발견되었다는 역시 아아진 바닷가에서 이근철 선생 고택에서 머물렀다가 남긴 한시 지금까지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 비록 1920년 함경도 사람이 원본을 가지고 가고 필사본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사한 결과 총 13수는 고성군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널리 암송하여 김삿갓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물로서의 김삿갓에 대한 이해는 궁금한 대목이 많다. 그렇다면 김삿갓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을까?

김삿갓의 시가 보여주는 역사성은 우선 그 사실성에서 드러난다. 김삿갓은 시에서 비를 만나 하룻밤을 묵은 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민의 집이었다. 전국을 巡歷하면서 동가식서가숙하였던 그의 행보를 감안하면, 흔히 만나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굵은 나무로 서까래를 만들었고, 처마에는 그을음과 먼지가 가득하다. 가운데가 한 말 크기 공간인데 몸을 틀이미니 다리를 펴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과 주거 공간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시에서는 밥상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고기와 채소를 상대화시키고, 딸감과 울타리의 관계를 대비시켜 보여준다. 특히 고기와 채소의 관계를 권력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서민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부자와 권세가를 읊었다면 술→고기→채소의 순으로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계급적 관계를 영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길 위에서 만난 걸인의 주검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는 시에서는 그 연대를 정확히 비정할 수는 없지만, 시 속의 표현에서, 걸인의 몸은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라는 점도 간취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재난, 또는 재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단,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길 위인 만큼 드러나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역사시의 조건은 시간과 사람과 공간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서 성립된다. 여기서의 시간은 김삿갓이 巡歷을 시작한 시점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이다.<sup>24)</sup> 여기서 사람은 화자인 김삿갓과 걸인이다. 두어 되 남은 쌀은 단순한 걸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적지를 이탈해 유랑 중인 사람[流乞]이었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乞丐가 아닌 流亡(離)人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삿갓이 역사한 시대는 언제 즈음일까?

김삿갓이 생존한 1807~1863년 사이 조선사회는 잦은 자연재해와 함께 人災로 인한 피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농민이 생산수단인 농토를 버리고 流亡·逃散하는 것이었고,<sup>50)</sup> 마침내 1862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삿갓의 「路上見乞人屍」는 이룬바 壬戌民亂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부패와 사회경제적 문제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폭발한 것이었다.<sup>51)</sup>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은 전주곡으로 김삿갓으로 하여금 「路上見乞人屍」를 역사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역사와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삿갓의 시는 결코 한 시인의 문학작품이나 문학사의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사에 가깝다. 특히 그의 작품 속에는 현상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김삿갓의 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온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삿갓은 전국을 돌며 지방 곳곳 현상과의 만남을 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유력한 것은 결코 「放浪」이나 지배체제로부터의 「일탈」이 아니었다. 여기서 음미해 본 「路上見乞人屍」는 그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를 작자 자신의 모습을 비춘 그림[자화상]으로 이해한다면 다시 볼 일이다.

김삿갓의 시로 알려지는 시들 중에는 「김삿갓」을 가탁하여 씌어진 것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이며 화자의 관점이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기준으로 그의 시가 지향하는 바를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지점에서 작자의 시선과 더불어 당대 사회상을 만날 수 있다면, 차체에 다각도의 방점을 통해 역사로의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삿갓 시대의 漢詩는 지배층 엘리트들이 즐겨 이용하는 소통의 매개이기도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작자가 가난과 「걸인의 주검[乞人屍]」을 시의 소재로 삼은 것은 당대 지배층을 향해 당대 기층민들의 욕구를 적극 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乞人屍」는 특히 주목할 만한 시의 소재라 할 것이다. 가난을 새긴 또 다른 시에서 「莫道貧富別有種 貧者還富

富遠寶'이라 쓰고 있음은 그의 시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은 아닐까 한다. 여기에 조선후기 사회의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덧붙여, 김삿갓 시들에 대한 관심이 1926년 「개벽」의 문예부가 그의 시문과 전기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면서 높아지고 있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실시된 '조선문화에 대한 기본조사'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함께 결성한 단체에 의해서였고,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조선 문화의 독자적·자주적 인식을 도모하였다는 이해는 옳미해 볼 대목인 것이다. E.H.Carr 는 "역사가 또한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삿갓 그 자신 역시 조선후기 역사의 일부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역사한 시들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 방랑시인 '김삿갓'길에서 금강산을 만나다

김광섭(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죽장(竹杖)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가는 객(客)이 누구냐...' 천재시인「김삿갓(金鰲)」 노래 가사이다. 김삿갓(본명:金鰲, 1807~1863)은 조선말도 방방곡곡 初行 再行길을 문전걸식 유랑하며 우리 민족고유의 情懷과 물문을 가슴속 깊이 억누른 채 부패하고 몰락해가는 성리학의 윤리적 가치에 애처롭게 매달리는 사회지배층을 통렬한 풍자, 조롱, 희작시로 피 토하듯 질타하며 대놓고 비판한 개혁시인이었으며 저항시인이었다.75)

허경진교수가 옮긴 「김립시집(1997)」에서 "김삿갓 시를 번역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김삿갓이 지은 시라고 알려진 작품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를 김삿갓 본인의 창작이라고 보느냐 하는 점이다. 김삿갓의 시는 문집으로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텍스트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가 전국 말도를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시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6) 김삿갓이 고성과 관련하여 금강산 한시 〈금강산에 들어가다〉, 〈금강산경치〉, 〈금강산에 들어가다〉, 〈스님에게 금강산 시를 답하다〉 4수가 이 책에 수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 계기로 고성지역에서 13수가 김삿갓 시라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5수가 전하는 아야진 이근철선생의 고택에서 남긴 김삿갓 시 또한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1920년경 원본은 누가 가지고 가고 필사본만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진말경 한시 또한 「고성군지(1986)」에는 화진말경 소재목만 전할 뿐 개인소장의 표구가 발견되면서 한층 더 김삿갓 시가 부각되었다고 본다.

강원일보(2015.11.10)자로 「고성서 김삿갓 한시 5수 발견」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내용을 보면 '강릉 函州대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가 방랑시인 김삿갓이 금강산을 가는 도중 간성 이근철(李根喆) 선생 집에 머물며 써준 김삿갓 한시 7언 절구 5수는 1920년경 함경도 사람이 와서 원본을 가지고 가고 대필한 필사본이 현재 남아서 전하고 있다.'

아야진을 배경으로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 5수 가운데 1번째 7언 절구시 "一朝馬死黃金盡親戚反爲路上人(어느 날 말도 사망하고 황금도 소진되니, 친척도 도리어 행인이 되어버렸네)"라고하여 아야진을 찾아온 나그네인 김삿갓 자신과 주인(이근철)을 대비하고 있다. 한편 가의대부 이근철(1852년 사망) 선생은 현종 6년인 1840년에 대기근으로 굶주림을 겪는 간성 주민들을 구휼해 살렸으므로 아야진 주민들의 의해 영원토록 공적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영세불망비'가 세워진 인물이다.

김삿갓이 노래한 화진말경 중 아직도 그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금구도와 부서지는 파도가 어우러지는 '금구농파' 뿐이다. 월안몽림, 차동취연, 강평낙안, 풍암귀범, 구룡치수, 모화정각의 정취는 주변이 현대화되고 관련 시설물이 사라지며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줄어드는 등 시간에 따라 풍경이 바뀌면서 그 모습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졌다. 특히 화진포 일원 모래밭의 해당화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취를 감추고 있어 '평사해당'도 점점 과거의 풍경이 돼가고 있다. 이들 팔경 가운데 일곱 번째인 구룡치수 대신 '모운종성(茅雲鐘聲)'은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乾鳳寺)와 현내면 명파리 초제암(鳥啼庵)에서



# 회귀했더니 김삿갓

젊은 양반,  
왜 삿갓을 쓰고  
다니는 것이요?

...

사실 난,  
영월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더이상  
하늘을 볼  
날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허-  
웃긴 양반일세-

뭐-  
하늘이 노할  
일이러도 한잔가?

과거시험에서  
역적 김익순에 대해  
욕을 한바가지  
써주었건만,



내가 그 역적의  
후손일 줄이야.

김익순이  
내 할아버지다.

그 부끄러움에  
삿갓을 쓰며 전국을  
유랑하고 있는것 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라...  
보통 양반은  
아니구먼.

외식-

나 역시....  
회귀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

크크크...

끼끼...

조선 사대부들의  
악덕과 부정부패.

이치적합-

조선 사회의  
온갖 폐해.

모든 것을  
비판했던 김삿갓의  
삶을...!!

마침.

그림 : 김석수

제작도움 : 영월중 도서&웹툰반







# 삿갓을 쓴 사역(四翼) 시인



《詩仙臺金剛山之墓》(서인 남고 김형만 작곡)

나라,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나라의 발 길을  
찾았으나 이렇게 뵈게  
되니....



너무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내 어릴 적,  
날 가르치던 훈장은  
훈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글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랐다.

이 녀석아!  
행(계몽)은  
'허황된 꿈을 좇는  
아들 정신차리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훈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계몽), 즉  
행은 공 '웅'자 아닌  
여두운 '웅'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운다'란  
뜻 아닙니까?

이 녀석아  
어딜 스승을  
가르치려 들어!!

에~험~!  
훈장께선  
참으로 학동들을  
잘 가르치셨나  
봅니다.



!!

그 때 행색이  
초라하며 삿갓을 쓴  
한 나그네가 나타나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뭐요?



배우는 아이가  
도리어 훈장의 실수를  
침으니 감탄하여 한  
말이외다.



에 자가...  
애들 앞에서 날  
당신 뭐?

허허,  
보아하니 글 좀  
패나 어나 본데..  
혹시 시도 자를 줄  
아시오?

달 너머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들도 한번  
배울 겸 내 문자를  
불러줄테니 한 수  
올려보시구려.

좋습니다.  
대신 학동들을  
가르친 값으로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럼 운을  
 띄우리다.  
먹(覺)!

허다운자하호먹(許多韻字何呼覺)  
하고 많은 운자 중에 왜 하필이면  
먹 자란 말이나?

어쭈?

이번에도  
먹!

피먹유난황차먹(彼覺有難況此覺)  
먼저 먹자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먹이나?

이놈 뵈라?

먹!

일야숙침현어먹(一夜宿寢懸於覺)  
하룻밤 묵는 지가 먹자에 달렸구나.

어런...!

먹!!

산촌훈장단지먹(山村訓長但知覺)  
산골 훈장이 아는 글자가 먹자 밖에  
없나보다.



그의 시는  
거침없지만 여유로웠고,  
굳건하지만 유연했다.



그렇게 나그네는  
절히 막힘없이 시를 읊었고  
혼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방랑시인 김삿갓'  
이라 불렀으며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시를  
남겼고,

난 한 평생  
그를 내 마음속  
스승으로 삼았다.



다음날,  
난 그 나그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서당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가 남긴 시는  
내 마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하며 오랫동안  
전해졌다.

그가 남긴 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훗날 나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기억 속에  
나의 시를 남기고자  
멀고 먼  
방랑의 길을 떠나려  
한다.

- 完 -



그림 : 돈길

제작 도움 : 영월중 웹툰반



아  
래  
로

읽  
어  
주  
세  
요



## 인플루언서 김삿갓

내가 살던 시대는...  
순조와 철종이 임금이었던  
조선 후기였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의 핵심가문인  
신 안동 김씨. 노론 정통 김씨  
얼가에서 태어나

백두산을 제의한 조선왕도  
이곳 저곳을 누볐으며,  
때로는 혼쟁 노릇을 하여  
후학을 기르며 숙식을 해결하고,

조선 사대부들의 악덕과 부정부패,  
조선 사회에 존재하던 폐해 따위를 비판하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노래로  
풀어내길 좋아하던 내 이름은 김병연...

바로 김.삿.갓이다.  
명방곡곡 자유를재 떠돌아다니던 나는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 떨어지는 별뚝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어지는 마음을 생기며,  
두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째서일까...감았던  
눈을 다시 떴을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의 조선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시 눈을 떴다.

이 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지내며 새로운  
문화들을 배우며



현재의 '김사카스'로  
세상을 알리며 아주 재밌게  
잘 살아가고있다.

영월아,  
너도 요즘 유명한  
김사카스라는  
인물루면서 알아?



알지 알지~  
대한민국 사람이려면,  
그 사람 모를 수가 없지.

난 예전에  
이미 팔로우 했어.  
너무 대단하지않나?  
가격글만 올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감형이지?



여우~  
친목 앞뒤만거리잖아.

정치원, 연매연,  
공무원, 기타등등  
밤방곡곡 알려여하는건  
다 올리는 사람이잖아ㅋㅋ

kim\_sakas~



1818

게시물

1.8만

팔로워

0

팔로잉

김사카스

밤방곡곡 자유로운 영혼  
평형유사인 | 다스전공자 @kim\_sakas

프로필 편집

프로필 공유

네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



맞아ㅋㅋ  
나도 처음에 진짜  
어 사람 뭐지 했더니까~  
도리인을알았는데,  
자카스스로  
밤방시연이래잖아~

난 얼굴이랑 나이가  
너무 궁극하다.  
잘 생겼으려나~  
설마 여자는 아니겠지?

저잉



그런데 최한하게도  
새로 태어난 이 세상  
역시 과거와 다르지않다.  
변함없었다...

아ㅋㅋ역시 사이다 발은 사카스님.  
제가 진짜 응원합니다!!  
이런거 다 어디서 알아오시는거예요?  
- 정말 신궁하고살아요!?

전혀 자전사장은 어떻게 알려지려  
광고를 고치고 사라한다니깐요!!  
사카스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니까  
사람들도 광광을 알게되고,  
전혀 최고인거같아요♥♥

저도 이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거짓말 아니고 저 선생님 진짜 거래요  
대하면 더할지, 이렇게 알려져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ㅋㅋ

현재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정부제압들을 나는 오늘도  
SNS에 알리고 있다.

김삿갓 - 문화 - 교류

## 김삿갓 해학과 풍자로 놀다



단풍이 풍성하게 물든 계곡을 끼고있는 난고김삿갓문화관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에 축제방문객들이 발걸음을 옮겼다. 김삿갓문화제 행사에서 선보이던 공연들이 평소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말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제27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역대로 많은 방문객들이 맞이해준 축제이기도 하며, 가장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던 축제였다. 이 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고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양한 공연 때문이지 않았을까.

10월의 저녁, 계곡이 있는 산자락은 잔바람과 함께 냉기가 가득한 축제장으로 변하였다. 추위와 싸우던 관람객들이 귀가하려던 때 뮤지컬의 오프닝과 함께 발걸음을 멈췄다. 청춘 발랄 퓨전사극코미디 뮤지컬 '멋다 ㅅ갓(삿갓)'이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삿갓을 쓰고 방랑했던 김삿갓 인물을 소재로 하여 이번 제27회 김삿갓문화제의 부제 "김삿갓 시 속의 정취를 나누다"와 적합한 공연이지 않았나 싶다. 신나는 음악을 통해 추위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몰입도가 강하였고, 관객들의 호응으로 무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김삿갓 풍자와 해학의 길 걷기. 외씨버선길 함께 걷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던 나른해진 축제 둘째 날의 오후, 방문객들의 귀를 신나게 해줄 김삿갓예술제가 시작했다.

클래식, 아카펠라, 복고댄스, 퓨전밴드음악을 차례로 선보여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무대였다. 라열영상볼의 현악 4중주와 스프링클럼의 아카펠라 공연은 행사장 한 곳에 위치한 문학마켓에서 독서를 하며 문학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7080 절음의 행진의 복고댄스, 개화기 밴드 아시시의 1930-40년대 옛 가요를 편곡한 공연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었다. 또 이전과 달라진 제27회 김삿갓문화제를 빛낸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 있다. 랩 경연대회 수상자 공연을 빛내준 배치기 탁&DJ의 축하공연이다. 김삿갓문화제의 방문객은 연령층이 높다. 그들이 빠른비트의 랩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곳 김삿갓문화제 연령층이 높은 방문객들은 Young World (영월)에 와서 Young(젊은)해진 것일까? 어린이, 청년, 중년, 노인 전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머리 위에 들고 'put your hands up(양 손을 올려)'



를 외치며 뛰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 층이 함께 어울리며 세대를 초월하여 음악으로 소통 하는 장면 되었다.

김삿갓문화제 방문객들이 가장 기대하던 무대! 배우 정경순과 가수 알리의 아트 앤 북이 진행되었다. 공연 전 30분의 리허설에도 듣는이의 음악 감성을 두드리며 관람석이 가득찼다. 흐르는 별빛 아래 난고 김병연의 시가 낭독되며 서정의 풍경을 그렸다. 단지 문학으로, 감성적인 시 낭독으로, 알리의 정교한 음악이 서로 맞물려 보는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여 문학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공연을 찾아와준 관객들은 몸소 느꼈을 것이다.





## “말하기에 자신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수천 명의 스피치 코치

한석준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34가지 '말 잘하는 법'

명확하고 똑 부러진 말투로 KBS 간판 아나운서로서 활약했던 한석준 아나운서의 스피치 책이 출간되었다. 수천 명의 수강생이 열광한 스피치 코치이자 24년 차 아나운서로 명실 가감 없는 그는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일상에서 말을 잘하고 싶은 일반 대중을 위한 스피치 노하우가 담긴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을 펴냈다.



문학축제 무대의 꽃, 감성이 풍성한 목소리가 음색도 너무나 아름다워 관객들의 환호를 듬뿍 받으며 가을 밤의 북콘서트가 시작되었다. 라콤마의 오프닝 무대로 전 KBS 한석준 아나운서의 저서《한석준의 말하기 수업》에서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이끌어갔다. 강연에서는 24년차 아나운서인 한석준의 스피치 노하우를 담아내며 대화하는 방법,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말하기 법칙에 대해 관객들과 이야기를 이어갔다. 묵넛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똑 부러지는 말투로 몰입감이 넘치는 뜨거운 강연을 선물했다. 다시한번 라콤마의 진전한 엔딩공연을 마지막으로 하루의 막이 내려갔다.







시간 참 빠르다. 축제의 마지막 무대. 폐막무대가 찾아왔다. 3일간 이어진 축제를 아쉬워하는 관객들, 폐막공연을 기대하던 관객들, 다양한 행사에서 수상을 한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호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이어졌다. 5명의 가수들이 약 10분에서 15분간 이어졌는데 시간상 왕 코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아쉬운 만큼 더 열정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최병서, 김재원, 김나해, 김수진(루나퀸), 김수찬 가수들의 실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한편, 가을 하늘 따스한 햇빛 아래 펼쳐진 김삿갓문화제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프로그램들이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축제장 초입에는 영월초등학교와 내성초등학교에서 약160여 명의 학생들이 김삿갓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도자기에 김삿갓을 표현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아끼자기한 도자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김삿갓의 정신을 나타낸 그림들은 김삿갓문화제 행사장에 찾아온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기와 2기에 이어 3기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직접만든 작품으로 포토존을 구성하여 행사장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더욱 뜻깊은 프로 그램이라는 호평이 많았다.





행사장 한 곳엔 커다란 나무판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건 왜 설치해 놓은 걸까?'라는 의문들이 생길 즈음 누군가 나무판자 앞에 페인트와 락카를 담은 통과 다양한 미술용품들을 가져다 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락카로 속속 몇 번 움직이는데 사람이 보이더니 좀 지나자 김삿갓이 아주 힘하게 변신했다. 그래피티 퍼포먼스가 시작된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직접 바라보며 렘 경연대회의 비트가 들리며 이곳이 현대판 김삿갓 축제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행사장 건너편 김삿갓 요역에서도 김삿갓 제향,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 외씨버선 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전시행사인 시화전이 진행되었는데 김삿갓문화제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학인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전국 문인 100여 명이 함께 참여 하였으며, 동강 문학회에서 발간한 "노루목에 부는 바람 제14집"을 작품화하여 김삿갓 요역 올라가는 거리를 화려 하게 장식해 주었다. 이처럼 행사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 해주었지만, 전시를 통해 볼거리까지 풍족하게 선사해 준 이번 김삿갓 문화제! 가지각색 다양한 공연들,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들까지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현장이었다.



## 삿갓프로젝트 3기 참여자



내성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 15명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이상결입니다. 영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교과서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단종에 대한 장편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단종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은 것에 비해 김삿갓은 지역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아이들이 김삿갓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월 내성초등학교 6학년 별반 양지윤입니다. 평소 책읽기를 좋아해서 김삿갓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초등학교생으로 마지막 김삿갓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김삿갓은 글쓰기 주제가 자기 할아버지였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모욕해서 삿갓을 쓰고 다니며 시를 썼습니다. 색칠할 때 아이디어를 짜느라 힘들었지만 다 색칠하고 나니 아름답고,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김삿갓 - 문화 - 교류

되는데로 걸음 따라

① 김삿갓 풍자와 해학의 길 걷기



# 김삿갓이 되어 떠나는 ‘김삿갓 해학의길’

강원도민일보

## 일본 시코쿠길(오헨로)

일본 작은 섬 시코쿠에는 특별한 길이 있다. 사찰과 사찰을 잇는 이 길을 ‘오헨로’ 라고도 불린다. 시코쿠 순례길은 1200년 전, 일본 불교에서 유래했다. 시코쿠 순례길은 1200km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길을 다 걷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이 길을 모두 걷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걷는 사람은 특별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흰색 도포와 나무 지팡이, 그리고 햇빛을 막거나 비를 피하기 위한 삿갓 모양의 모자다.

일본에 시코쿠 길 걷기가 있다면, 영월에는 2013년부터 시작된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가 있다. 일종의 종교적 의미가 있는 시코쿠길 걷기에 비해 김삿갓 해학의 길은 조선 후기 권력과 부조리를 향한 날카롭게 풍자하면서도, 따뜻한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민중시인 김병연 선생의 시(詩)가 함께 있는 문학의 길이다.

## 2013년 김삿갓 탄생 203주년에 시작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는 강원도민일보가 대표적 민중시인인 김병연 선생 탄생 203주년이 되는 2013년 10월, 각계 명사 203명을 초청해 김삿갓 복장으로 김삿갓 문학관에서 생가터까지 다녀오는 걷기행사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참가자들은 두루마기에 페나리꽃점을 지고, 지팡이와 삿갓을 쓴 차림으로 가을 정취 가득한 길을 걸었다. 마치 한국판 오헨로(시코쿠길)인 셈이다.

참가자 스스로 김삿갓이 되어 걷게 되는 해학의 길에는 김병연 선생이 남긴 수많은 시를 만날 수 있다. 강자에게는 풍자로 저항하면서도 억눌린 민초들을 위로하고 있는 김삿갓의 시는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 김삿갓 해학의 길에만 있는 것

김삿갓 해학의 길을 걷다보면, 저절로 김병연 선생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해학과 풍자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활력을 얻어가는 소중한 기회도 제공한다. 문학과 자연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김삿갓 정신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고 파란한 삶 가운데 잠시 잊었던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김삿갓 해학의 길은 지역 문화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걷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채로운 영월 특산품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김삿갓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삿갓이 있다

뒤통이자면, 김삿갓 해학의 길은 늘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영월 김삿갓 계곡을 찾으면 언제나 김삿갓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봄에는 봄맛이 나온 김삿갓을 만날 수 있고, 여름에는 계곡을 타고 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김삿갓 시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가을철 김삿갓 계곡의 단풍은 그야말로 계곡물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연출한다. 흰눈에 쌓인 김삿갓 계곡에서 김삿갓 선생과 만나는 것도 행복이다.

# 사뿐사뿐 빠져드는 4色 매력 외씨버선길









# 생활계획표





유소나의  
농활일기

# 요리캠프 레시피



## 곤드레밥

김현

재료 : 영월 곤드레, 쌀

- ① 냄비에 물을 받아 곤드레를 넣고 30분 정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 ② 만졌을 때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불을 끈 후 20분정도 끓인 물에 담가 뜸 들여 주세요.
- ③ 데쳐진 나물을 찬물에 헹구어 낸 후 찬물에 20분정도 담가주세요.
- ④ 전기밥솥에 잘 씻은 쌀과 데친 곤드레를 넣고 취사를 누르면 끝!

※ 물 맛은 평소보다 살짝 많이 잡아주세요



## 눈개승마 무침

안소아

재료 : 영월 건 눈개승마, 들기름, 파, 마늘, 들기름, 간장, 액젓, 참깨

- ① 건 눈개승마를 끓는 물에 10분 이상 팔팔 끓여주세요.
- ② 만졌을 때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불을 꺼 주신 후 20분정도 끓인 물에 담가 뜸 들여 주세요.
- ③ 데쳐진 나물을 찬물에 헹구어 낸 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 ④ 달궈진 후라이 팬에 들기름과 함께 파, 마늘을 넣어 기름 내어주세요.
- ⑤ 파, 마늘 기름에 눈개승마를 넣고 볶아주면서 간장3+액젓1+참깨1 넣어 간을 내어주세요.
- ⑥ 눈개승마의 식감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릇에 담아주세요.

※ 삼겹살과 함께하면 꿀맛!



## 취나물 무침

유소나

재료 : 영월 취나물, 대파, 된장, 다진마늘, 참기름, 간장

- ① 취나물을 끓는 물에 1분가량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주세요.
- ② 헹군 취나물을 물기를 꼭 짰 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 ③ 대파흰부분1+된장1+참기름1+다진마늘1+간장3 비율에 맞춰 데친 취나물에 비벼주면 끝!



# 유소나의 농화일기

방랑 시인 김삿갓의 정취가 흐르는  
강원도 영월에서 과연 어떤 일이?!

EP2. 영월편 | 10월 12일 오후 2시



김현



MC 유소나



이채희





## 되는대로 걸음 따라 ② 외씨버선길 함께걷기

(사)경북북부연구원



출처 : 외씨버선길 홈페이지



외씨버선길은 청송, 영양, 봉화, 영월의 4개 군을 잇는 15코스의 246km의 둘레길이다. 4개 군이 이어진 모습이 버선을 닮았다고 하여, 영양 출신 조지훈 시인의 '송무'에 나오는 '외씨버선길'에서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닦여진 넓은 길이라기보다 4개 군의 지역적 특색에 맞게 코스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고향의 길이기도 하고, 산길, 고택길, 계곡 따라 걷는 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인문학적인 길이기도 하다.

그 중 영월은 외씨버선길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3개의 코스가 있다.



## 가장 어렵고도 가장 매력적인 길

첫 번째, 11길 '마루금길'은 봉화군 물야면에 위치한 상운사를 시점으로 한발은 경상북도, 한발은 강원도로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다. 상운사를 시작으로 김삿갓문학관에 이르러서야 16.6km(9~12시간 도보)로 종료를 한다. 각 구간별 지형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발 1,000고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능선 코스로 외씨버선길 전체 구간 중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경상북도의 삼도가 접하는 접경지역으로 삼도봉을 지나가는 의미도 있고, 길의 양끝 지점에서 1시간 이상 산 오르기를 하는 어려움을 지나면 고갯마루따라 걷는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완주자들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매력적인 길이라는 찬사를 받는 코스이다.







## 난이도 '하', 김삿갓문학길

두 번째, 12길 '김삿갓문학길'은 김삿갓면의 김삿갓문학관을 시점으로 김삿갓면사무소를 종점으로 하는 12.7km(3~5시간 도보)의 '난이도 하'의 코스다.이 길은 김삿갓문학관에서 시작을 하고 요역을 지나는 등 김삿갓이 실제로 걸어 다녔을 법한 옛길들을 복원하였기에 그의 시속에 담겨진 정취를 느끼며 걷는 즐거움이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고을로 유일한 영월의 길답게 구간에서 잠깐 벗어나서 중간중간 둘러 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있고, 구간의 마지막인 가랑야봉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탄한 마을길과 계곡 옆 숲길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계곡 따라 심어져 있는 단풍과 가로수등 가을의 정취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길이기에 외씨버선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다.



## 외씨버선길의 마지막 여정

세 번째, 13길 '관동현 가는 길'은 외씨버선길의 마지막 여정으로 외씨버선길 가운데 가장 긴 24.6km(8~10시간 도보)로 산세가 험하여 하루에 완주하기보다 두 번에 나눠 걷기를 추천하는 길이다. 김삿갓면사무소에서 시작하여 관동현을 종점으로 한다.

김삿갓면에서부터 고씨동굴 등산로까지의 초반길은 험난한 구간으로 대야산성을 지나 고씨동굴등산로 갈림길까지 크고 작은 오르막이 반복되기에 남은거리를 고려하여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야 하고 풍경을 즐기다 보면 점차 도심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 길 위에서 찾는 도도한 생명주의, 그 시 힘



제19회 김삿갓문학상 본상 수상자  
김금용 시인

“삶이란 노마드적일 수 밖에 없다.”

방랑자를 의미하는 노마드(nomad)는 돌리츠(1925~1995)의 철학적 성찰 이후 그의 저서『차이와 반복』(1968년)에서 “고정된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는 유목민적 삶을 의미하게 되었다. 저 역시 30여년간 오랜 외국생활과 “사막의 형제”라는 동인들과 매년 5년째 사막과 초원, 고원 등을 다니면서, 문명에 가려진 작고 여린 것들의 원초적 생명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에게로 회귀하는 생명의식을 시로 써왔다

“정착과 소유가 낳은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주의로부터 시작된다.”

환경보호, 지구 위기 의식은 노마디즘을 낳는다.  
디지털 노마드족, 디자인 노마드족, 갑 노마드족, 하우스 노마드족, 핫딜 노마드족  
SNS의 발달로 세계가 한 울타리 안으로 좁아지면서, 자유와 개방적인 삶을 추구하며 모바일커머스를 주도하는 디자인노마드족부터 직업을 따라 유랑하는 갑(JOB)노마드족, 한 달살기 등,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사는 하우스노마드족, 핫딜 정보를 수집, 순례를 즐기는 핫딜 노마드족 등 다양하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노마디즘이 일고 있다.

## 1) 방랑 김삿갓 시인

조선시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시작된 방랑 시인이지만, 그 문학적 성과는 성공적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마디즘 예술가이다.

2) 백남준 화가 디지털노마드족이었음. 1960년대부터 전기전자장비, 티브이를 이용한 예술활동. 1984년 인공위성 활용한 원격예술작품을 선보인 작가.

## 3) 마이 네임 가브리엘 (TV 프로그램)

마르쿠스 가브리엘(1980년~ ) 2009년 독일 본대학 교수(28세) 회연소 교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2013)』, 『나는 뇌가 아니다(2015)』, 『생각이란 무엇인가(2018년)』, 『마르쿠스 가브리엘(2024)』출간. 다 베스트셀러가 됨. 신존재론 주창. “생각 자체가 하나의 감각” “인간은 생각감각을 비롯한 공유된 감각에 기초, 근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재를 경험”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로 살면 어떨지, 상상하는 능력”을 지녔다.를 기초로 티브이 기획물이 최근 방영됨





## “생명주의가 펼쳐진 사막, 몽골 초원, 파미르고원.”

문명이란 인간위주의 편리와 이기에 우선하여 발달, 자연 파괴와 동식물을 인간의 먹이감 내지는 수단으로 종속, 환경질서를 파괴함.

사막, 고원, 초원은 상호등 없이도 질서를 지켜 걷는 양, 소, 말떼와 동행하는 삶.

형식치례와 속도에 연연하는 목표지향주의 등이 부질없으며, 탈경계, 벽 허물기, 동등한 동행자임을 배우게 된다.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 하는 일이 있다. 무릇 본능이란 몸의 언어이므로 몸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된다. 김금용의 시들을 읽다 보면, 그런 본능 혹은 몸이 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넘치는 생명성’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김금용이라는 사람의 변별적 자질(이것을)일 것이고,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워낙 생득적인 것이어서 김금용 자신도 못 말리는 어떤 도도한 힘 같은 것이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폭발하는 힘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도약하며 창조한다. 김금용을 읽다 보면, ‘창조’를 ‘생명의 악동(질적 비약)’으로 읽어낸 베르그송H. Bergson의 주장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은 악동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 세계로부터 악동만큼 생명과 비슷한 개념을 부여하는 관념은 없기 때문이다.”(『창조적 진화』 제3장) 생명은 멈추어 있지 않다. 그것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움직이며, 변화한다. 지속적인 운동이야말로 만물의 존재 양식이다.

지속이란 ‘발명과 형체의 창조,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의 계속적인 건조建造를 의미한다.’(베르그송, 앞의 책) 지속으로서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질적 비약(악동)을 할 때 창조가 이루어진다.

검은 레깅스 귀퉁이를 갈라냈어요  
가위질 소리가 침묵을 깨웠죠  
귀만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뿔어나는 긴 경적  
소름 돋았어요  
살갓마다 뿔을 달고 오글거리는 싹뿔이  
출고 시린 청보라빛 꽃잎을 피워냈어요  
-----중략-----  
무장한 외투에 묶였던 꽃씨가  
나신으로 뛰는 머리칼마다 참깨비고깔꽃이 피네요  
프랑스 혁명의 고깔모자가 함성을 지르네요  
꽃향기가 거친 입김을 따라 쏟아지네요  
아생의 살냄새가 진동하네요  
검 없이 피어나네요  
고깔모자가 달려나가네요,  
-시 '달리는 고깔모자'부분-

시「달리는 고칼모자」는 김금용의 생명 지향성을 탁월한 상상력으로 잘 보여준다. 그녀는 몸을 가두는 “검은 레깅스”를 용납하지 않는다. “조여드는 무용복”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생명-행위의 시작이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인의 내부에 있는 ‘못 달리는 힘’이다. 움직임을 막고 존재를 가두는 것을 잘라냈을 때, “소름”이 몸을 정도로 생명성이 약동한다. “살갓마다 뿔을 달고 오글거리는 싹뿔줄”이 튀어나올 때, 경계가 무너지고 범주들이 해체된다. “야생의 살냄새”야말로 “억압된 것의 회귀”(프로이트)이고, 약동하는 생명의 실체이다.

위 시는 김금용의 생명 지향성을 잘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금용의 시 창작론으로 읽어도 된다. “땀으로 번득이는 등줄기와 전라로 뛰는 무용수”는 억압의 외투를 찢고 억압된 것을 불러내 해방하는 시인의 은유로 읽어도 된다. 조여드는 무용복을 가위로 찢어서 몸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무용수처럼 시인도 생명의 약동하는 힘으로 모든 경계와 범주를 해체한다. 시의 언어가 마지막으로 안착하는 곳은 분석의 이성이나 생명의 감성이다.

숨소리로 온다  
빛으로 온다  
색으로 온다  
푸른 그림자까지 길게 데리고 온다

빈 몸으로 헐벗고 섰던 들판  
검자발 긴 고랑마다 빛이 고인다  
발을 적마다 붉은 흙물이 올라온다

태아가 용트림을 시작하는지  
꺼만 봉지를 찢고 기지개를 켜다

~「물의 시간이 온다」부분~

시「달리는 고칼모자」는 김금용의 생명 지향성을 탁월한 상상력으로 잘 보여준다. 그녀는 몸을 가두는 “검은 레깅스”를 용납하지 않는다. “조여드는 무용복”을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생명-행위의 시작이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인의 내부에 있는 ‘못 달리는 힘’이다. 움직임을 막고 존재를 가두는 것을 잘라냈을 때, “소름”이 몸을 정도로 생명성이 약동한다. “살갓마다 뿔을 달고 오글거리는 싹뿔줄”이 튀어나올 때, 경계가 무너지고 범주들이 해체된다. “야생의 살냄새”야말로 “억압된 것의 회귀”(프로이트)이고, 약동하는 생명의 실체이다.

위 시는 김금용의 생명 지향성을 잘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금용의 시 창작론으로 읽어도 된다. “땀으로 번득이는 등줄기와 전라로 뛰는 무용수”는 억압의 외투를 찢고 억압된 것을 불러내 해방하는 시인의 은유로 읽어도 된다. 조여드는 무용복을 가위로 찢어서 몸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무용수처럼 시인도 생명의 약동하는 힘으로 모든 경계와 범주를 해체한다. 시의 언어가 마지막으로 안착하는 곳은 분석의 이성이나 생명의 감성이다.

물은 생명성의 보편적 상징이다.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종교의식에서 물은 생명, 부활, 재생의 비유, 매개 혹은 에너지로 활용된다. 여기에서 베르그송을 패러디하면 물(베르그송에게는 “양분”)은 “일종의 욕망이므로, 불타면 튀면 자신이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물은 씨앗을 터뜨리고, 세포를 증식시키며, 언 땅을 벌리고 일사귀를 밀어낸다. “물의 시간”(봄)에 새 생명(‘태아’)은 “꺼만 봉지를 찢고 기지개를 켜다”. 이 동작은 앞의 시에서 검은 레깅스를 찢는 무용수의 행위와 같다. 생명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약동하는 힘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것들을 찢는 것이다. 생명이 찢지 않아도, 모든 억압의 외투는 생명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진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모든 태아는 자궁보다 더 커지고, 양수를 터뜨리며 세상으로 나온다. 세상에 나온 태아는 출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지속하며 약동하는 생명의 ‘창조’이다.

~ 오만석 교수의 시집해설  
(저 도도한 생명주의의 힘)에서 발췌

이와 “길 위의 시간, 생명의 힘”이란 제목으로 전해수 평론가가 쓴 〈물의 시간이 온다〉시집조명이나 “평형을 깨는 반란의 자유”를 쓴 백우인 시인, “오독誤讀을 오독誤讀하기”란 제목으로 새롭게 조명을 한 이영숙 평론가의 글, 이형우 시인의 글 등에서도 공통된 시각을 찾아낼 수 있다.

(김금용 산문)

「신유물론」을 읽다보면, 시인들의 직관이 예지가 이미 그들 이론을 앞서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레이트 하먼이나 메이어하수의 ‘존재자의 우연성의 필연성’을 읽다보면, 시인에겐 퍼뜩 마주치는 우연의 존재를 통해 創發emergence되는 경우가 술하게 일어났을, 그리하여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몇 날 몇 밤을 그 낱아찬 우연의 소재를 시로 옮긴 경우가 많았음을 철학자들의 이론 앞에서 깨닫게 된다. 보기의 시 역시 그렇게 다가왔다. 발에 발히면서도 돌아서면 다시 일어나는 토끼풀들의 지독한 생명력은 인간 위주의 이기와 황금 자본주의의 가치 기준 아래 무시되고 소외된 사물들에 대한 ‘눈동’이 되었고, “투덜거리지 말게/기차가 끊임없이 내달리는 교각 아래/그 틈바구니에 매달린 너에게/별 한 무더기 내려보낼게// --중략--//하필 콘크리트 벽에 뿌리를 박았냐고 묻지 말게/흙내가 그리워/날아든 황사 한 줌 물어 안고/젖네 풍기는 엄지손톱



“여름 한낮  
까맣게 탄 내 그림자 아래  
눈을 뜨는  
흰 토끼풀꽃들

그래  
내가 마고 할미다”

-시“포착”전문-

떡잎 밑에선/너의 숨리에 뭐라 토를 달 것인가”(시“툼바구니 너에게” 일부)처럼, 매마른 시멘트 교각 ‘툼’에서도 생명성은 도도해서 하등 인간과 차별을 둘 수 없음을 그 우연의 소재들이 내 머리를 치며 다가온 시편들이었다.

특히 매년 열흘씩, 코로나가 있기 직전까지 4년간 서학을 찾아다니며 4,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그 불모의 땅에서 마주친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낙타가시풀’을 씹어 삼키는 낙타의 눈물을 마주하며 생명의 존엄성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소생 의지엔 이유도 절망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배반과 위선이 쉬운 인간보다 사물간의 공생 관계는 시 “먹이 구하러 나왔던/전갈 한 마리/사막 여우 한 마리/누가 이길지 모르는 돌판에 둘러앉아/두런두런 소란을 피우다/별무더기 덮고/같이 잠이 든다//”(시“공생”)처럼 의리가, 공평한 나눔이 있음을, 이번 「물의 시간이 온다」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수초가 뒤엉킨 호숫가를 한밤에 산책한 적이 있었다. 캄캄한데도 바람이 일렁일 적마다 이파리들이 물기를 머금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윤기는 ‘물의 힘’이었고, 지구의 자궁이었고, 모든 생명을 꺼안아 키워내는 엄마의 모성본능이자 포용력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빛나는 생의 값진 모습이었다. 흔들리지만, 깊이 뿌리 박은 수초의 뿌리처럼 우리는, 모든 사물은, 함께 각각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의 시간이 온다」의 ‘시인의 말’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저들은 /견디고 일어서는 내 생이다/내 사이다”라고 썼던 이유이기도 하다.



‘낙타가시풀’을 씹어 삼키는 낙타의 눈물을 마주하여 생명의 존엄성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소생 의지엔 이유도 절망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배반과 위선이 쉬운 인간보다 사물간의 공생 관계는 시 ‘먹이 구하러 나왔던/전갈 한 마리/사막 여우 한 마리/누가 이길지 모르는 돌판에 둘러앉아/두런두런 소란을 피우다/별무더기 덮고/같이 잠이 든다//시’공생’처럼 의리가, 공평한 나눔이 있음을, 이번 ‘물의 시간이 온다’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수초가 뒤엎킨 호숫가를 한밤에 산책한 적이 있었다. 캄캄한데도 바람이 일렁일 적마다 이파리들이 물기를 머금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윤기는 ‘물의 힘’이었고, 지구의 자궁이었고, 모든 생명을 깨어나 키워내는 엄마의 모성본능이자 포용력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빛나는 생의 값진 모습이었다. 흔들리지만, 깊이 뿌리 박은 수초의 뿌리처럼 우리는, 모든 사물은, 함께 각각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의 시간이 온다’의 ‘시인의 말’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저들은 /견디고 일어서는 내 생이다/내 시이다”라고 썼던 이유이기도 하다.

총사위엔 가드레일이 없어라  
아무 구분도 필요없어라  
시선을 마주하면  
민들레도 영경위도 온몸을 흔들어라  
고양이도 강아지도 날아가던 참새도  
여개춤 추며 달려라  
서로 밟고 물어 먹혀도  
들꽃이 들꽃이 함께 춤추는 너른 초원  
꺼입었던 옷 벗어던지고  
나를 허무니 좋아라  
붉은 총사위에 실리니 좋아라

- 시 ‘들꽃총사위’ 부분 -

“미련한 싹 속에 독한 사랑을 키운” 것들은 내 시였고, 내 꿈이었다. “도려내도 다시 자라나는” (시 ‘지지리도 못한 것’

부분) 탓에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기둥은 어둠 속에서도 출렁였고, 물기에 젖어 스스로 빛을 내뿜는 수초처럼 자꾸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는 늙어진 풍성한 잎새와 가지로 내게 젖을 물리며 안아주는, 뿌리까지 푸르게 젖어드는 물푸레나무가 되어 막힘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춤을 추는 바람을 안고 뒤섞여 춤추기를 꿈꿨다.

표4를 써준 한영옥시인도 내 시에서 ‘도도한 생명주의’를 보았다고 한다. “창조”를 ‘생명의 악동’으로 읽어낸 베르그송의 주장을 내 시 곳곳에서 읽어냈으며, 아무도 못말리는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해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구의 아웃사이드인 식물과 동물이 인간과 더불어 얽힘과 연계에 귀기울이게 하는 시의성을 논하며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삶을 시를 통해 찾고자 한다는 말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시 ‘팔월의,팔층의,매미의,나의’에서 김 경평문가는 “인간의 탈을 벗고 번데기로 매미로 환생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욕망에, 우리 모두가 갇혀지고 살고있는 실존적인 고뇌가 우렁찬 매미로 강경하게 울려나온다” “시속에 깃발처럼 새차게 나부끼는 실존적 고뇌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게 빛나고자 간구하는, 만법귀일의 소실점으로 이어 ‘지기를 메시지로 보냈듯이 시 ‘달리는 고깔모자’에서는 실재 나신으로 춤을 추는 무용가들의 공연을 보며 ‘생명이란 요동치는 물결이고/ 빛은 움직이는 유혹이고 꿈의 입자’여서 ‘탈출은 끊임없는 푸른 매혹의 EXIT’ (시 ‘아뇌큐메네’ 부분)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마주침’이란 정동靜動이론으로 내 안에서 들끓는 욕망이 내 뒤통수를 때렸음을, 이번 시편들을 통해 항의해본다. 아니 이동제정以動制靜, 동적인 이기,욕망에서 벗어나, 유충 때는 맑은 물에서 사는 다슬기만 먹다가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 성충기엔 2주간 이슬만 먹고 그 맑은 빛을 내는 반딧불이처럼 지구 환경을 지켜내는 마음의 정화를 시로 밝히는 시인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

일찍이 성찬경시인께서 버려진 폐품들을 모아 사물의 윤기를 살린 시를 쓴 것처럼, ‘시힘’을 빌려 공생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 지속적인 생명의 운동에서 ‘창조’가 이뤄진다는 걸 밝히고 싶다. 그런 시인이고 싶다. 게으름 피울 수 없는, 수초들처럼 스스로 빛을 내며 어둠과 외진 모서리에서라도 각을 꺼안고 비바람을 견디는, 그 수초의 튼튼한 뿌리를 시에서도 찾아내고 싶다.

- 문학콘서트에서 발표, <문학저널> 게재됨.

\*김금용시인: 동국대 국문과 졸업.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원(석사)졸업. 1997년 <현대시학> 등단. 시집 『광화문자루』(1998, 고려원) 『넘치는 그늘』(2006, 천년의 시작) 『햇줄은 따스하다, 아프다』(2014, 문학세계) 『각을 끌어안다』(2021, 현대시학 기획시인선) 『물의 시간이 온다』(2023, 현대시학기획) 중국시번역시집 『문학이 날은 중국현대시』, 한국시중역시집 『나의 시세계』, 『今天與明天』(한국번역문학원). 김삿갓문학상, 동국문학상, 편번역문학상, 산림문학상, 손곡문학상, 세종우수도서(2015, 2021년). <현대시학> 주간 역임. 현, 시전문 계간지(시컬) 주간, 동국문학인회 회장.



슬로시티  
김삿갓면에서 즐기는  
영월 슬로라이프

# 축제-만남-영월

# 발 닿는 곳으로

# 다 이루고 말거야!

VACATION

WORK

WORCATION

DIGITAL NOMAD

WOW

문학과 함께하는

영월 나라 위케이션

작가+ 낭만 위케이션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이다.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고, 여행을 장기간 일상처럼 즐기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개관된 김삿갓면 위케이션 특화시설 영월 더 블리스 위케이션 호텔에서 위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27회 김삿갓문화제에서 진행되는 작가+낭만위케이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족인 전국 작가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영월의 매력을 경험하고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일상을 제공했다.



**THE BLISS**  
WORKCATION



# 더블리스워케이션호텔 (The Bliss Workcation Hotel)

2024년 준공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07-12

문의전화 033-375-1500

홈페이지 <http://theblissworkcation.com/>

주차요금 [무료] / 와이파이 / 전객실 금연 / 별도 흡연구역 / 보안



동강과 서강이 만난 남한강의 멋진 자연과 더불어 **일(work)과 삶(Live), 쉼(Play)**을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워크ेशन 호텔입니다.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업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특별한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총 객실 수 25개

■ 구비시설

- 객실 : TV, 넷플릭스(개인계정으로 사용해야함), 에어컨, 냉장고, 장롱
- 욕실 : 샴푸, 린스, 바디워시, 수건, 드라이기
- 공용주방 : 준비중
- 필요시 : 다리미, 다리미판 제공가능

■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2025.01 ~)

2024년 3월 29일부터 1회용품(칫솔, 면도기 등)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에 따름.

■ 부대시설

- 컨벤션, 영·유아 키즈카페, 초콜릿체험관, 객실, 레스토랑



# 너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연진

슬픔과 눈물을 머금은 너는

그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우는구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을 알아주는 너

명함을 사알에 비유한다면 상룡과 같으리라

외롭고 슬픈 마음은 허강이 쇠갑고

아름은 아름다운 자만이 감싸안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명함을 사알에 비유한다면 청령포와 같으리라

밤하늘 수놓은 별들의 착수

너를 만나기 위해 출은 곳으로 가는 나

고요히 정상에 올라 만나는 무수 그 동계 잔잔 별마로

명함을 사알에 비유한다면 별마로천문대와 같으리라





밤달 시인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이끄는 바람  
굽이치는 언덕길을 따라 그의 문학이 흐르네  
아름 느며보라고 너는 나를 담겨주었구나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김삿갓 유적지와 같으리라

즐거고 깊은 마음에서 도발하는 나를 너는  
격엽의 시간이 빛은 신비로운 지하 세계에서 이어주는구나  
사카의 보아나 영항의 깊은 속내를 읽는 너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고이 들굴과 같으리라

파슬을 비둘 듯 솟은 바위에 뛰어가는 구룡사원  
바람에 걸벽이 깎이는 줄 모르고  
너는 나에게 험자가 되어주는구나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선돌과 같으리라

아름다운을 두르고 있는 너는  
너의 물줄기조 나의 슬픔을 씻겨주는구나  
맑은 물소리, 자연의 산물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여마천과 같으리라

삼천이 금수강산이 한눈에 들어오네  
영항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드는 곳  
온 세상을 품에 안은 넉넉한 사랑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완반도 이형과 같으리라

부서짐의 천산사리가 삼은 이곳  
고요함 속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  
너의 품에 안겨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다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법동사의 명운 시간과 같으리라

흐르는 물줄기에 바뀌어 가는 너를 바라보기 위해  
기어미 나는 그렇게 한곳을 지미는 아가 되었구나  
한 폭의 동양화같이 영원한 풍경이 되는구나  
영향을 사랑에 비유한다면 조선암, 조선림과 같으리라



인생에 휴식이 필요한 때,  
떠나세요!

# 영월 여행기

김은나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올해 9월 남편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고, 나도 회사를 다니며 맛벌이를 하다 보니 주말에 체험은 커녕 누가 잠을 더 많이 자는지 대결하는 것처럼 앞다투어 잠을 자기 바빴다.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때쯤 인터넷 검색을 하다 영월 낭만 워케이션이 눈에 들어왔다. 동시 수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를 쓰기 좋아하는 첫째 아이와 활동적인 체험을 좋아하는 둘째 아이가 즐거워할 것 같았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50명만 뽑는다는 영월 낭만 워케이션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사실, 영월군은 내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곳이다.

충북 제천인 시대과는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고, 우리 가족이 서울 성동구민이라서 (예전 봉래초등학교 문산분교) 성동 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 숙박시설을 이용했었다. 그당시 영월 별마루전문대를 방문했었는데 구름이 많이 끼서 형성을 관측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다. 이번 2박 3일간의 영월 낭만 워케이션 첫날 일정에 별종종 온하수 투어 일정이 있어서 예쁜 별을 볼 수 있을지 두근두근 설렘었다. 일정에 늦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하고한 뒤 남편이 퇴근하는 곳에서 바로 만나서 영월로 자가용을 타고 갔다. 오후 5시반에 출발하여 2시간 30분 걸려 목적지인 영월 더블리스 워케이션 호텔에 도착하였다. 차량 정체가 심한 금요일 퇴근시간대에 출발하여 2시간 30분 걸렸기에 아마 다른 날 출발한다면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2시간 이내면 도착할 것 같아 부담이 없는 서울 근교 여행이 될 것 같았다. 숙소 체크인 후 해아 하는데 어디다 여쭙봐야될지 몰라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카운터 호텔리어분께서 어떤 일로 오셨는지 먼저 친절히 물어봐주셨다. 먼저 이렇게 물어봐주시는 친절함에 감사했다. 숙소에서 간단히 짐을 풀고, 1층 컨벤션홀에 가니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디지털관광주인공 영월에 가입하면 대나무치술, 고체치약, 김삿갓 굿즈달력, 자석병따개, 캘리그래피 방향제, 동구발 여행용 삼푸·바디·샤워바 등이 있는 푸짐한 영월 김삿갓 축제 굿즈를 제공해주셨다. 두 번째로는 청아한 달빛을 배경으로 그림자 사진을 찍어주셨다. 우리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인 반면, 남편은 내가 다가가는게 두려웠는지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찍혀서 웃긴 사진을 건질 수 있었다. 밤23시부터 시작된 온하수 투어 일정에는 피곤하다는 남편을 억지로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굵이 굵이 어두운 길을 달린 후,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천문 과학관에서 4d 영상을 볼 때 나오는 별보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내 눈 앞에 광활하게 펼쳐졌다. 영월군청의 허가를 받아 가로등까지 꺼주셨는데 더 많은 별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1개 볼까말까 한 별. 아, 이 맛에 사람들이 별 보러 영월을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영월이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에 아직 많은 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참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가로등을 끄고 별자리 해설도 해주는데 그냥 보면 몰랐을 별에 대해서 알게 되어 좋았다. 레이저 불빛을 비춰가면서 여름철 별자리인 직각 삼각형 별을 그려주고, 가을철 별자리인 사각형 별도 그려주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권우별보다는 직녀별이 가깝다는 지식도 알려주었다. 별 해설이 끝난 후에는 돛자리를 펴고 누워서 별 관찰을 하였다. 우리 가족은 깜빡하고 돛자리를 챙겨가지 못했는데 담당자들이 돛자리를 여러개 챙겨 오셔서 준비해주었다. 편안하게 돛자리 깔고 누워서 별을 관찰 하는데 별 명 때리는 시간이 좋았다.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서 멍하니 별을 바라보는 것이 직장 생활에 지친 스트레스를 자연스레 날려주었다. 워케이션은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라면 이곳 영월에서 워케이션을 누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려고 한다. 별 명 때리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새벽 1시가 되었다. 누워 있으니 추워서 남편과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평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 무뎉뎉한 가족이라 서로 껴안을 일이 없기에 그 또한 좋았다. 시간이 지나자 굳건하게 언덕 위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와 남색, 보라색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은하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 얼굴이 나오지 않기에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침대 바로 앞 고씨동굴이 보이는데, 산 중간에 흰색 빛으로 바람결을 따라 그림을 그려놓은 듯 운무가 너무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어서 한참을 바라봤다. 조식으로는 숙이 알차게 짭 차있는 샌드위치와 주스가 제공되었다. 5층 식당에서 바라보는 고씨동굴 앞 산이 너무 멋져서 경치를 바라 보며 여유롭게 식사를 했다. 숙소 퇴실 마지막 날에는 첫째 아이가 인상깊었던 풍경이 있는지 좋아하는 tv 관람을 마다하고 5층에서 경치 보면서 먹자고 할 정도였다. 김삿갓 축제 중 해학의 길 걷기를 참여하기 위해 부지런히 서둘렀다. 주차를 한 후 다리를 건너가는데 삿갓 프로젝트 3기로 영월의 초등학교생들이 고운 흰색 삿갓 모자 모양에 예쁘게 색칠해놓은 종들이 모빌로 전시가 되어있었다. 아래로는 김삿갓 계곡이 흐르는데 큰 돌들 사이로 물줄 흐르는 맑은 물들이 여유를 즐기게 했다. 영월 김삿갓 축제를 들어서니 달달영월 sns 구독하고 쿠폰 돌려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첫째 아이는 달팽이 모양의 솔로우시티 영월 키링이 당첨되어 축제기간 내내 키링을 달고 다녔을 정도로 좋아했다. 이외에도 점식카드, 비타500, 견과류, 물티슈, 말기쿠기, 달달영월 소주잔 물품이 있었기에 축제에 오는 모든 분들이 소소한 행복 선물을 받아갔다. 축제장으로 들어서자 예뻐와인, 현미누룽지 등 영월군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였다. 소장 체험비용만 받고 하는 김삿갓 쿠키체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있었다. 각심회에서 김삿갓 시 탁본 체험을 무료로 해보았다. 아이들이 직접 물을 탁본 화선지에 적시고 잉크를 묻혀 얼굴에 볼터치를 하듯이 풍풍 두드려주니 글씨와 그림이 나와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탁본체험에 필요한 나무에 새겨진 김삿갓 그림과 글자는 각심회 회원분들께서 직접 조각하셨다고 하시는데 감각 있는 작가님들이 많아서 대단하였다. 김삿갓을 배출한 영월의 문학 예술 정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다. 맞은편에는 캐리커처와 페이스 페인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대가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우리 아이들도 손과 얼굴에 무지개 무늬와 어몽어스 캐릭터로 페이스페인팅을 받아 한껏 즐거워했다. 옆 부스에서는 달달식탁이라고 해서 부녀회에서 저렴하게 김밥, 식혜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중이었다.



무대에서는 김삿갓 공연이 실감나게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기간동안에 무료 관람 가능한 김삿갓 문학관에 들어서 김삿갓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를 썼는지 배울 수 있었다. 김삿갓은 정해진 형식과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한시의 형식을 깨뜨리고 사랑 받는 일상적인 사물과 용어를 활용하여 그만의 독특하고 해학적인 시 세계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나 옛날에는 정해진 형식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을뿐 아니라 해학적인 시를 적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텐데 참으로 용기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었다. 해학적인 시를 통해 한국의 문학 작품 발전에 김삿갓이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나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용기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발전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해학의 길 걷기 참여를 하기 위해 문학관 밖으로 나섰다. 해학의 길 걷기 참여자에게는 푸짐한 점심도시락도 제공이 되었는데 영월의 정성이 한껏 들어가있음에 미소가 지어졌다. 입에 넣으면 풍족함이 가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속이 꽉찬 김밥과 강원도 영월을 대표하는 쫄면하고 투명한 감자떡, 배추의 아삭함과 메밀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메밀배추전이 정갈하게 담겨있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축제에서 대여해준 두루마기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되는 김삿갓 모자를 쓰고 해학의 길에 참여를 하였다. 김삿갓 생가터를 올라가는 길이 왕복 4km 가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걸었다. 해학의 길 걷기 가는 길에 있는 커다란 김삿갓 동상과 시원한 물이 졸졸 흐르는 조각상도 보는 눈을 시원하고 즐겁게 해주었다. 누가 주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산에 있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김삿갓 생가 터 인근에 떨어져있던 오미자열매와 도토리를 몇 개 소중히 주워 오며 행복해 하기도 했다.

영월 김삿갓 축제를 즐겁게 즐긴 후, 노을이 질때쯤 영월 붉은 메밀꽃 축제를 한다는 영월군 삼육리로 이동을 하였다. 동강 앞에 탁 트인 드넓은 홍메밀꽃밭에서 꽃들이 나 예쁘죠? 하면서 최대한 어여쁜 붉은 색을 뽑내고 있었다. 흰색 그네, 무지개와자 등 포토존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메밀꽃밭에서 사람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예쁜 우리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었다. 이후 저녁을 먹으러 영월 서부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인 맛집이라는 시장 순대국에 방문하였다. 중년의남성 단골들이 많아서 현지인 맛집을 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쏘양게 맑은 국물에 갈매가 나지 않는 속이 꽉찬 토종순대와 머릿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었다. 나는 배가 불러서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상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한 뿔배기를 다 먹었다. 알고 보니 제천에 사시는 시부모님도 알 정도로 유명한 순대국집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서부시장 내 마트에 들러 영월 동강 막걸리와 아이들 간식거리를 구매했다. 나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영월 동강 막걸리는 달큰하고 순한데다 깔끔해서 한사발을 꼭 들이킬 정도로 맛있었다. 시어머니도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시지만 영월 동강 막걸리는 맛있어서 영월 들를 때마다 꼭 사가신다고 한다.

이로써 영월의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했다.

영월 낭만 워크이션 담당자분들께서 식사나 숙박 등 아이들을 위해 세심하고 친절하게 신경써주시고, 최대한 영월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즐기고 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자연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을 눈에 담아올 수 있는 곳, 고요한 풍경을 즐기며 쉼 없이 달려온 나에게 휴식을 주는 곳, 인심이 넘치고 맛집과 맛있는 막걸리가 있는 곳, 우리 가족 모두 영월 낭만 워크이션 내내 즐거웠던 영월에서의 추억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영월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줘!**

#강원도 영월  
#가을 여행  
#낭만워케이션  
#10월 여행  
#김삿갓문화제  
#영월단풍구경



[강원특별자치도 명월군]

# 낭만워케이션 여행기

Copyright ©2024 by 여행하는 씨소부부



여행하는 씨소부부

부부가 세계를 여행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여행크리에이터 부부,  
지역별 여행 정보, 축제, 숙소, 맛집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해요.



[https://blog.naver.com/s\\_x2b](https://blog.naver.com/s_x2b)



[https://www.instagram.com/ss1ss0\\_travel/](https://www.instagram.com/ss1ss0_travel/)



<https://www.youtube.com/@씨소부부>



“

국내는 사계절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서  
10월엔 어디로 여행을 떠나면 좋을까?

”





우리인 코민을 멀리만큼이 눈치였는지 참가비 0원으로 많은 물줄기가 흐르는 영동일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낭만 무라에 0원 이벤트를 발견했다.

음료와자판기는 아닐지라도 국내를 여행하는 것 또한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낭만 무라에 0원 이벤트가 참아름답게 되었다.

무엇보다 0원 이벤트가 감동적이어서는 어떤 별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서해부부가  
마련 필수로 가는 여행지(17)로 올해 이제 초보전 령가(17)잖아 🌸

수도권에서 버스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나  
 일요일 문화누리카드 신청 중이어서  
 서울버스 또한 정박해 있어서  
 버킹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







하루엔 가을 하늘에 걸렸으므로,  
높은 산에 물줄기 있는 산맥들을 보며  
아름다운 노년 때를 살고  
그러나 또한,  
하루 할 일이 많아 힘든 일로도  
행복이 있다.

눈을 부운 한 새벽엔  
2km를 돌아가는 등산길을 걸어 할 일들이 있었다,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양쪽에 모자를 들고 모자를 들어 금슬한 것들이 있어서였고  
등산장도 이 길을 세일 걸으며 발흔목이 있어  
양발을 거둬와 발치를 남기며 된 것이 더없이  
모임스런데 양발을 바쳤다.

양이 돌아오는 가을 하늘,  
말안장 줄로써 양아들 풀한 유령이 양들 중  
양들 구렁 구렁을 걸어서 구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양들도 양만 주머니를 풀이  
구렁인 양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길에 돌아와서도 일었던 양들의 보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한 스토리본들도 모두 친절하고, 주변도 빠르게 통역시켜 주셨으며  
필요하다 시간 약속을 도와 많이 기록해볼 수 있게  
새로복부가 있고 있던 영물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강원도의 고요한 산속에서 차려진 영물은 자연의 아름다움, 역사적 중요성,  
활기찬 문화가 무분별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고요한 강과 웅장한 풍경으로 유명한 영물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국의 문화를 아름다운 경치에 꼭 바라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명품 데얼리스 워케이션 호텔  
The Bliss Workcation Hotel


무모라 큰 기대는 없었는데  
숙소 편대만도 상당히 좋았고  
이곳에서 쉼인 업무들과 잔잔을 하며  
말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워케이션(work+vacation)을  
2박 3일 동안 보냈다.





Still





시기를 잘 맞추어서  
별총총 은하수 두어줄 통째  
도시에서는 쉽게 보지 못했던,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뚫자리를 파고 누워 볼 수 있었다.

별자리에 대한 설명도 재밌게 해주셨는데  
예쁜 은하수 실루엣 사진까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강원도 영월을 더 예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살면서 별뿔별이 무수히 떨어지는 하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후학의 길 걷기 행사 참여를 위해 다음날인  
김장간 문화재에 참여를 했다.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대학생 때 김장간에서 대환 곤충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이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행사장에 참여하게 된 건  
이런이 처음이라 기분이 남달랐다.

김장간 후학의 길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마가린을 나누주었다.





장맛길 꽃밭을 지나

남자 후배가 지은 한옥의 국산들

마을 하물과 단풍을 보고 걸으며

동자와 후배는, 부끄러움의 입을 열었다

장맛길의 장맛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만남-영원

## 밤 닿는 곳으로 ② 김삿갓 낭만캠프





김삿갓

낭만캠프에

오면

얼마나

좋게요?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문화관 뒤면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제27회 김삿갓문화제 기간에 운영되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낭만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날 저녁에는 유즈랜드의 김삿갓면의 10월 추운 가을밤을 따스하게 녹여줄 잔잔한 공연과 윤미량 작가의 저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의 '편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를 주제로 하는 작은 북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김삿갓 문화제의 한 프로그램다운 캠핑참여자 대상으로 전통부채에 창작 시를 써보는 창작 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김삿갓면의 청천자연 아름다움과 함께 다양한 관광명소와 김삿갓문화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 화로

머리는 호랑이 같고 입은 고래 같으나  
자세히 보면 호랑이도 아니요 또한 고래도 아니네  
만약에 머슴이 불만 잘 피워 놓으면  
가히 호랑이와 고래도 구어 먹을 수 있겠네.





나무에서 밤이  
후두두두 떨어져  
간식으로 퍼먹었대나,  
꿀맛!

남편이 가스버너 불켜다가 렌트 요리칼들  
총과 비슷해있어서 피밭에서 고기구워  
렌트한으로 넘겨줄때 구멍으로 넘겨주니  
편한 기는 했어요 ㅎㅎ 지금은 수선해서 다시  
환상복귀했습니다 ^^

계곡물이 모자랄정도로  
꽤 깨끗한 일찍과  
많은 먹거리 볼거리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너무 아쉬웠다

작가와의 만남에서 책을 선물로 받았고,  
아이들과 샷샷을 쓰고 김삿갓 거주자에  
걸어가면서 오운도순 이야기 하면서 추억을  
남겼어요. 물론 캠핑도 즐겁게 했습니다

매 마칠 캠핑날이 저의  
생일(아빠)이었는데 캠핑하면서  
하이포와 딸 아이와 아들이 저의  
생일을 깜짝 축하해주었습니다! 감동의  
편지 때문에 눈물의 생일 파티가  
되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자연과 책과 노래를 좋아하는 저희 가족 안성맞춤  
이벤트!! 편안하고 가족같은 분위기로 낭만 캠핑  
캠퍼가족들을 위한 북포크 미니 콘서트 하하호호 웃으며  
즐기며 추억들도 만들었습니다.

하이포와 딸 아이와 함께 김삿갓 낭만 캠핑  
참여해서 가을날씨 만끽하면서 즐겼거리,  
볼거리 마구마구 즐긴듯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버스킹 공연과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프로그램이  
너무 기억에 남았으며 아내의 베스트  
필문상으로 직접 사인받은 작가님의  
책까지 선물받들속 있어서  
여고생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캠핑장

캠핑장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밤을 많이 즐기고 너무 즐거워 했습니다.  
들어오는 날 렌트장리 줄에 갑자기 큰아들이 소리를 질러서 함대시 엄청 큰  
밤송이와 밤이 아들 머리로 떨어져 놀라고 웃었던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

선선한 날씨에 아이들이  
계곡 구경하다가  
발바닥에서 울고불고 난리ㅋㅋ

밤하늘 아래에서 진행되는  
음악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낭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캠핑파이어에서 나을 따뜻한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캠핑날 저녁 좋은버스킹과 북콘서트  
특히 여행에 관한 북콘서트에서 너무  
좋았으며 김삿갓문화재와 명월이라는  
교장의 자연환경과 시장에서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좋았습니다.

낭만적인 곳에서  
낭만적인 시간에  
낭만적인 공연을 보고  
아이가 낭만적인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축제-만남-영월

제27회 김삿갓문화제

랩 경연대회

# KIMSATGOT RAPCONTEST



漢

詩

RAPPER

주상자

최성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겸,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김삿갓 한시 작품 '내 삿갓', '난고 평생시'를 토대로 창작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학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다보니, 재미있고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곡이 완성되었을 때 가사의 완성도나 곡의 완성도가 나를 만족스럽게 나왔던 작업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삿갓 랩 경연대회라는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서 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경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방랑시인

### 제27회 김삿갓문화제 랩경연대회 수상작

지이평생자유수

어디든 떠도는 방랑시인 Oh yeah  
신천초목, 속에 묻힌 지휘 오늘이  
구름 속에 기려진 달빛처럼  
삿갓 시인의 마음은 흐름  
세상은 헛되이 흘러가고  
니도 그 길 따라 외로이 강을 건너  
삿갓 하니 쓰고 떠돌이로 살지  
옛 시절 그리움에 다시 한 줄 적어놓지  
발걸음은 never don't stop  
성이 날 wider도 It's all right  
비림 타고 하늘 날아  
한 시 속에 내 마음을 담아 yeah  
천하를 떠돌며 본 건 원기?  
부귀영화? 헛된 정년김  
하늘 아래서 시 한 수, 마음에 새기지 그게 정답  
인생은 니그네길, 다 필요없이

시름들 속에서 혼지가 되고  
끝없이 여행, 내 맘은 평행, 한 글자 더 해  
삿갓 아래 숨긴건 단지 내 머리  
비는 먹어도 니의 자유는 먹지 못 해  
달이 지면 어둠이 오겠지  
빛을 따라가지 않아 내기 빛을 만들지  
니를 감춰도 난 숨지 않아 yeah  
날 기려도 빛은 지지 않아  
비림처럼 왔다기 구름처럼 흩어져도  
별지국은 남아 방랑시인 방랑시인  
그래 방랑시인  
방랑시인 Hey  
백발유공도불비  
삼경월조성님지  
방랑시인 Hey  
백발유공도불비  
삼경월조성님지

축제-만남-영월  
블러디루츠

<http://www.bloodyrootz.kr/>

Graffiti performance

Bloodyrootz

블러디루츠 크루는 대한민국 그래피티 팀으로서 국내 및 해외 각종 관공서,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여 그래피티 아트 작업을 하는 팀입니다. 블러디루츠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 및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피티 아트 기반의 미술, 인테리어, 패션, 문화 등 건전한 힙합 문화를 선도하는 그래피티 팀이 될 것입니다.

활동내용(2016년 ~ 2024년)

JTBC 드라마 마당장르한 그래피티, M.NET 언퍼티드 헬스타 시즌3 홍보 그래피티, 일본 오사카 CARM ART 스프레이회사 초청 그래피티 행사, SONY 엔터테인먼트 "A TRIBE CALLED QUEST" 대한민국버전 M/V 그래피티, 삼성브렉스 언더월드 100미터 광고 3D입형 등 그래피티, 용인시 스키에이트보드 공원 (X-PARK) 그래피티, YG엔터테인먼트 불熄워크 화장을 런칭 그래피티, 속리산 법주사 대한민국 최고 불교조경 그래피티 페스티벌, 전남 영광 F-1 그랑프리 대회 그래피티 행사, 서대문형무소 광복절 기념 그래피티 페스티벌, 서울 한강시민공원 "동망한강" 그래피티, 외교부 "세계인도주의의날" 광화문 그래피티 페스티벌, 식약청 "식품 안전의날" 광화문 그래피티 페스티벌, CJ 베어고 6 국인카드 "샷트랙페스티벌" 그래피티, 평창동계올림픽 오카콜라 광고 그래피티, 롯데건설 산업개발매번 그래피티, 김해 롯데아울렛 숙박 그래피티, 롯데홈쇼핑 채널3D 광고 그래피티, 말레이시아 코호르바루 트릭아트 매장 그래피티, 쇼미다이너미 "나팔라" 춤대 그래피티, YG엔터테인먼트 "프리덤" M/V 그래피티, 블라디슬라프 전국 매점 그래피티 아트, 강원도 인제군농협기술센터 협업 미술교과 그래피티,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 센터 그래피티, 수원특례시 청년의날 그래피티 라이브페인팅, 성동구 청소년을 위한 그래피티 라이브페인팅, 김제 학생교육문화회관 리뉴얼 그래피티 아트, 영월문화관광재단 갑셋갯문화재 그래피티 라이브페인팅 및 디수.



## 작가소개

### jin.k(김진국)

블러디루츠 크루의 팀장. 그래피티 전문 아트디렉터로 국내·외의 여러 그래피티 크루의 아트디렉터로 15년이상 활동하였습니다.

### Dmine(신동민)

블러디루츠, JD스타일의 메인작가입니다. 전직 랍퍼출신(지기독)으로 활동했습니다. 멋진 글씨를 그려내는 라이터로 24년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고, 지금도 멋진작품으로 그래피티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MPICE(김주현)

블러디루츠, JD스타일 외 메인작가입니다. 신동민 작가와 마찬가지로 전직 랍퍼출신(지기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인물실사와 캐릭터 작품을 24년 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고, 지금도 멋진작품으로 그래피티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Q. 이번 제27회 김삿갓문화제에서 진행한 그래피티는 어떤 작품인가요?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한 김삿갓문화제에서 진행했던 그래피티 아트 라이브페인팅은 김삿갓이 현대에 살고 있다면 멋진 랍퍼 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또는 둘을 병행한 세상의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예술계의 이단아, 거리의 게릴라 등으로 현대예술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현대대로 돌아온 김삿갓을 생각하며 작품을 진행해보았습니다!!

### Q. 김삿갓문화제에 처음 방문하셨는데요. 그래피티 아트 퍼포먼스 행사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뜻깊은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에서 함께 섞여 행사를 즐기고 한바탕 신나게 놀고 먹고, 음악도 듣고 무엇보다 현대미술에서 각광 받는 그래피티 아트 문화를 김삿갓문화제와 콜라보 하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최측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문화축제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김삿갓 문화제를 응원하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욱 더 즐기러 오겠습니다!!



## 영월 김삿갓을 말하다

### 극단 시와별

시와별은 영월로 귀촌한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2021년 창단한 지역 극단이다. 영월에서 첫 공연은 '영월에 온 어린왕자'로 지역 어린이와 함께 만든 영어 뮤지컬이었다. 지금까지도 전문 예술인을 기반해 영월 주민 및 어린이들과 함께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넘어 적극적인 예술 활동 참여의 장을 열고 있다.

2022년 4월 초연한 장릉 경내 상설 공연 〈장릉 낮도깨비\_1457, 잠든 소년〉은 창작뮤지컬 영월 천년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단종의 애사와 지역 도깨비 설화를 결합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 〈월기 경춘〉, 〈백월 벨라티〉, 〈진달래장 의사〉 등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제작하고, 이를 영월뿐 아니라 서울 공연을 통해 영월과 영월의 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극단

# 시의 의 법



## 영월, 김삿갓\_노마드 시인, 김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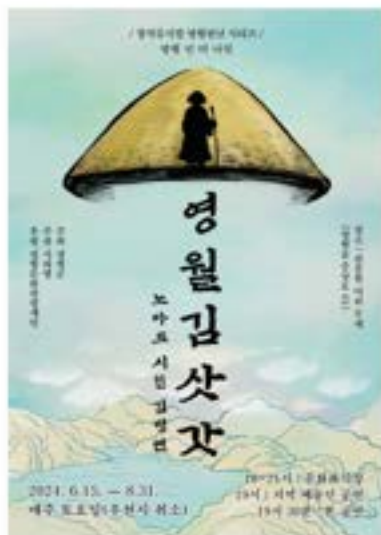
영월천년 시리즈 중 하나인 <영월, 김삿갓\_노마드 시인, 김병연>은 김삿갓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로 전국을 돌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 공연내용

김병연은 당시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 형석하고 과시를 잘 지음에도 벼슬길이 번번이 막힌다. 조선 시대에는 안동 김씨 양반이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삿갓을 쓰고 바람을 뱉삼아 방랑을 떠난다. 그가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그곳 마을 사람들이 김삿갓의 소문을 듣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김삿갓은 시 한 수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는데...







#### 〈영월, 김삿갓〉 제작 배경

김삿갓 문학관에서 시를 한 편 읽고, 바로 옆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김삿갓의 삶이 부러웠었다. 우연한 기회에 김삿갓이 어머니, 형과 함께 숨죽여 지냈던 삼육리에 살게 되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게 되었다. 한(恨)은 문화 심리학에서 보면 한국의 독특한 정서이다. 김삿갓은 양반으로서, 예술인, 선비, 아들, 아버지, 인간으로서 '한'을 잊지 게 물어낸 인물이 아닌가 싶었다. 전국 팔도를 떠돌며 그가 시로 문제를 해결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영월 삼육리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영월 에 많은 문화콘텐츠가 있지만, 영월 천년 시리즈 세 번째로 '김삿갓'을 제작하게 된 것은 그가 널리 알려졌지만, 영월과 김삿갓을 연결짓도록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다.

#### 이호영 감독님의 한 말씀!

영월의 밤은 시와 별이 흘러 아름답습니다. 김삿갓은 참 슬프고도 멋진 삶을 산 분입니다. 삿갓 하나 쓰고 전국을 유랑하며 발이 닿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지만, 삿갓 아래 가려 그의 삶은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실력과 가문이 있음에도 방랑하며 살아야했던 그의 운명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생각하면 그 외로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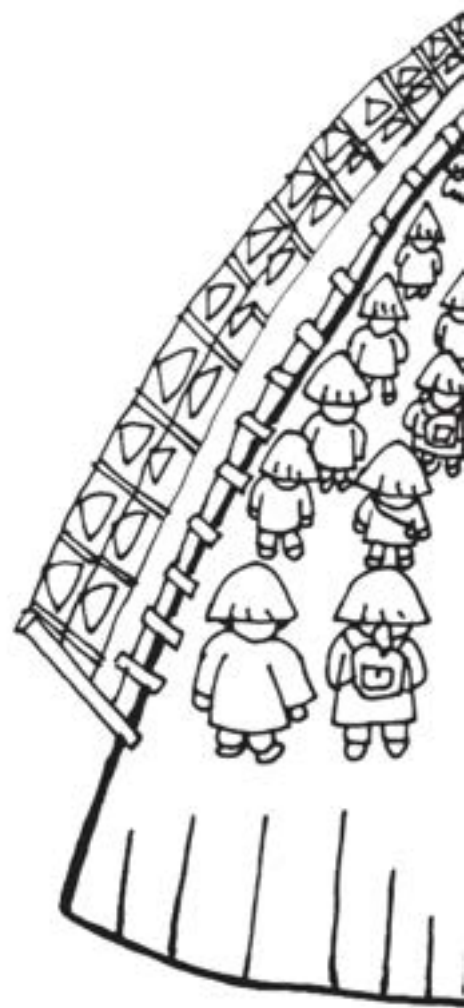
시대를 건너 사무칩니다. 야외 공연의 특성상 너무 무거울 수 없고, 그렇다고 김삿갓을 가볍게 그리고 싶지도 않았 습니다. 그럼에도 김삿갓의 삶이 여러 분께 여운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월의 김삿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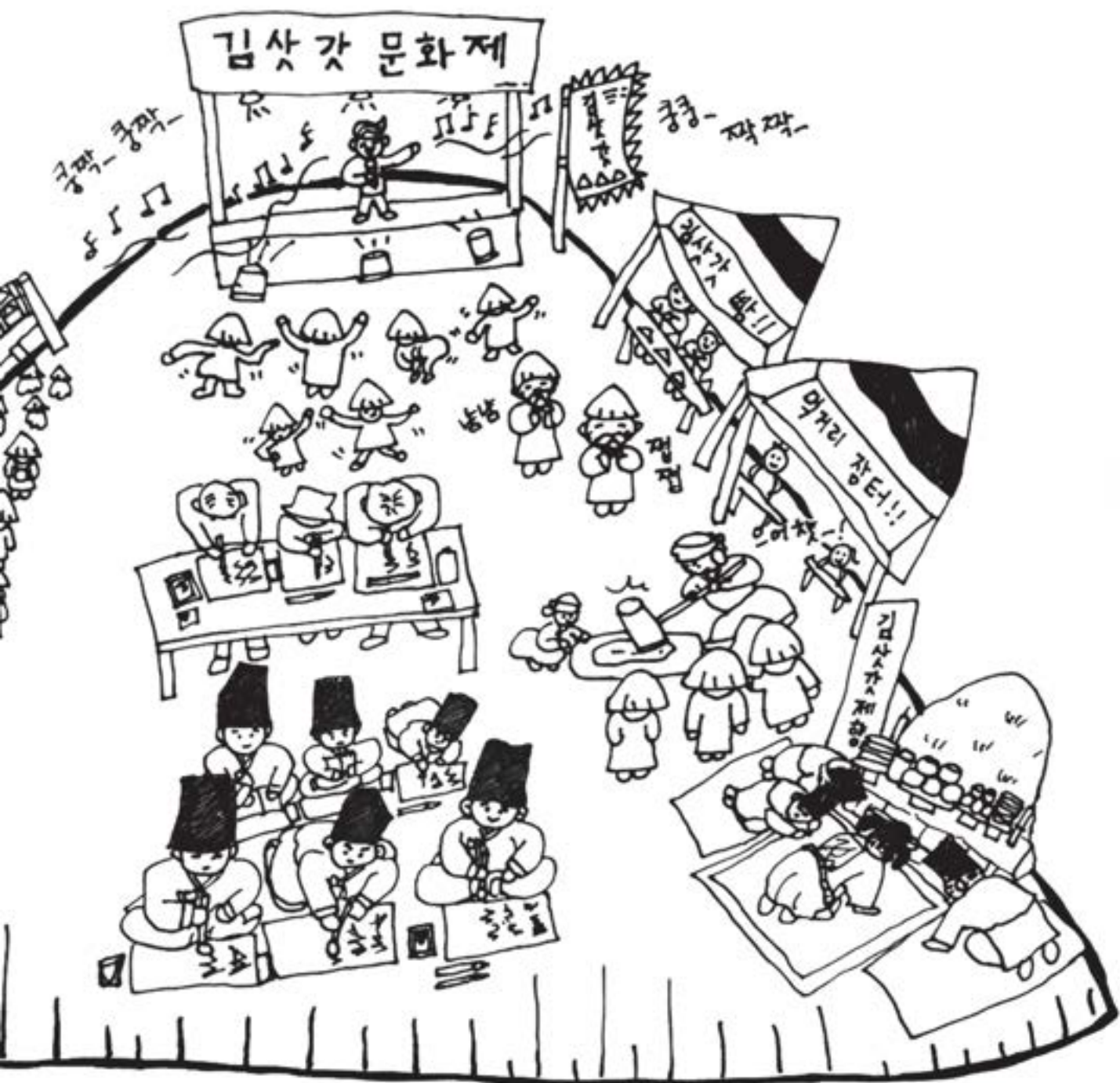
we

Young wol

KIM Sat Got







김삿갓 시 속의 정취를 나누다







# 영월 문학을 열다!

## 글벗문학회

1998년 6월, 영월과 경선에 살며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10명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후 시낭송회와 시화전을 열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창작물을 모아 문집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나눈다. 주제가 있는 시 이야기와 글쓰기를 하며 해마다 발간하는 문집은 25집이 되었다. 매월 2화씩 모여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창작물을 만들어 합평하고 그렇게 모인 글은 문집에 실고 있다. 또 글벗 나들이라는 이름의 문학나들이를 하며 근대 사람의 문화를 찾았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꾸준히 할 것이고 문학을 향한 애정으로 이 고장과 사람을 사랑하며 이 고장의 아름다운 문화의 한 불꽃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 1998



2023년 글벗문학 제24집 출판기념회



## 2000

## 동강문학회

영월동강문학회는 2000년 12월 8일에 창립하여 현재 영월을 비롯하여 서울, 원주, 제천, 강수, 광양 등 전국에서 3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4월 7일 제35회 단종문화제 주부백일장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단종문화제와 김삿갓문화제에서 일반부와 학생부 백일장을 주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김삿갓과 문학인의 만남」을 주관하여 전국의 유명 문인을 초청하여 영월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적 소양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문학기행을 하면서 현지의 문인들과 교류를 하고, 2002년부터 매년 회원작품을 수록한 연간지 「동강에 뜨는 별」을 발행하였고, 그 외 시상송대회, 청소년문학캠프 등을 진행하는 영월의 대표적인 문학단체가 되었다.

## 동강문학회 회장 홍성래

- 1959년 강원도 영월 출생.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석사 재학 중.
- 지방교육행정직 임용,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임관, 강원도교육청 행정과장, 삼척교육문화관장 복귀.
- 2015년 <이야기로 풀어보는 청원> 수필집 발간.
- 2017 사립<술을 본다, 다시 태어난다> 발간.
- 2008년 대통령 표창 수상, 한 동강문학회 회장



(김삿갓문화제 시화전)

“문학은 삶이고 삶은 문학이다.” / 홍성래

그것을 시로 쓰면 시인, 소설로 쓰면 소설가, 극으로 쓰면 극작가가 되는 것이고, 삶의 대화와 생각을 활자화하지 않고 일상의 대화로만 그치는 분들도 넓게 생각하면 말로 문학을 하는 구비문학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분이더라도 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어른들의 삶과 지혜는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다.

삶과 문학을 기억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글을 쓰는 건 더 많은 이들과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고, 자신의 기억이 바래지 않고 오래 남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시집을 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것이 시화전이다.

올해도 김삿갓문화제를 맞아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지원으로 김삿갓문화제 기간 중에 김삿갓 모역 앞에서 시화전을 개최하고, 작품을 모아 <노루목에 부는 바람> (13집)을 발간하였다.

영월의 문인을 비롯하여 평소 영월 동강문학회와 교류가 깊었던 춘천 원주 삼척 서울 여주 등 전국 시인들의 작품 100편을 엄선하여 시화를 곁들 김삿갓문화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다.

영월문학은 난고 김삿갓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근대에 들어서는 한국문인협회 창립당시부터 활동하고 관여하신 영담 김어수 시인이 영월문학의 또 하나 큰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근래의 영월문학은 1976년에 영월고 석정여고 영월공고(현 한국소방마이스터고)의 3개교 연합체로 활동하던 <단종문예회>, 1980년에 김삿갓, 김어수로 이어지는 영월문학의 맥을 이어보자고 만들어진 문학동인회 <영맥>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8일 영월 평양냉면에서 <영월동강문학회>가 발족을 하고, 2001년 5월 5일에 김삿갓모역에서 국내 3대 최장수문학회인 삼척 두타 문학회 회원들과 같이 “김삿갓의 시혼을 찾아서”라는 컨셉으로 야외 시상송회를 가진 것이 김삿갓

문학을 영월문학의 가장 오래된 문학적 근간이 됨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김삿갓과 문학인의 만남'을 주관하여 김삿갓문화제를 찾는 전국의 문인들이 김삿갓문학상을 받은 유명 문인들의 문학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영월동강문학회의 시화전은 2005년 여성회관에서 처음 열렸고, 2010년부터는 김삿갓문화제 시화전으로 하여 김삿갓문화제와 연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이어오고 있고, 작품들은 일화용 전시에 그치지 않고 <노루목에 부는 바람>으로 발간하여 올해 13집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아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한 해였는데 올해 김삿갓문화제 시화전 작품을 거는 날에 발표가 되어 더욱 뜻 깊었다. 영월동강문학회에서 2002년부터 김삿갓문화제 전국백일장을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우수한 문인을 발굴하여 왔는데, 임상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한강 이상의 우수한 문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 시화전을 준비하고 설치하고 전시하는 기간 내내 회원들 각자의 문학적 소회를 회상하며 시화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다. 아주 오래전에 뿌린 김삿갓의 시혼이 오늘에 되살아나듯, 오늘 영월동강문학회가 백일장을 통하여 배출한 분들이 현대와 미래 한국문학, 더 나아가 세계문학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문인들이 영월에서 더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2024년 제14회 노루목에부는바람 시화전





## 달빛문학회

문학의 길에 동행하며 진솔하고 따뜻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달빛문학회는 강원 영서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 동인으로 2017년에 창립했다. 초대 회장으로 최문규 시인이 역임했다. 8년의 세월 동안 많은 회원이 등단하고, 개인 문집을 발간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8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는 김남권 시인과 달빛문학회 회원들의 조금씩 익어가는 글은 문클함을 자아낸다. 김남권 시인은 '문학의 주소는 사람이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가슴에 정착한다'고 말한다. 같은 정착역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달빛문학회의 글은 책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2024년 달빛문학회의 여덟 번째 작품집인 '지상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영월문화관광재단'의 지원으로 더 알차고 실속 있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작품집에 실린 여러 이야기를 통해 달빛문학회 회원들의 성장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5월 20일 작가와의 만남-김효은 시인(영월문화관광재단 소회의실)

# 2017

# 2024

## 모정문학회



모정문학회는 우울 또는 운동 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하였다. 올해 다섯 번째 문집을 출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학회 회원 평균 연령 80세로 고령이지만 다양한 문학 활동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히 관내 문학 행사 참여에 적극적이다. 해마다 함께했던 참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아픔은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글쓰기 작업을 통해 고귀한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매월 자조모임을 통해 내적 갈등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문집 발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글쓰기 주제로 영월댁의 이야기, 유년시절, 자녀들 이야기, 삶의 회고 등 80년 세월동안 다양한 삶의 회고애락을 글로 표현하였다.

2024년 10월 14일 영월댁의 이야기 출판기념 및 수료식

우리-영월-김삿갓

김삿갓 위 아트

# KIMSATGOT WE ART

지역예술인공연



## 은가비색소폰



영월 은가비 색소폰은 2015년 12월에 결성된 단체로 10여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영월읍 관동현길 69번지에 별도의 연습실을 갖추고 있다. 현재 남자 10명 여자 2명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음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보통 독주보다는 합주를 중심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제27회 김삿갓문화제에서는 통통이, 한잔해, 징기스칸 등 3곡을 8명의 회원이 참여 하여 연주하였다.

## 쌍용에어로빅



작은 사골 동네인 쌍용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2010년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건강을 위해 만든 팀이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젊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70이 넘었다. 50대는 3명, 60대 후반이 제일 많고, 70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 가득한 회원들이 있어,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즐겁고 열정 넘치는 엘빅팀이다.

## 한울오카리나



2018년 지역 음악인을 중심으로 10대에서 7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봄은매밀꽃축제, 땃목 축제 등 지역에서의 공연 참여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음악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김삿갓문화제에서는 방방시인 김삿갓의 흔이 스며있는 노루목에서 오카리나 연주를 통하여 김삿갓의 해학의 아름다움과 함께 영월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에 회원들과 단합된 마음으로 참여했다.

## 김삿갓두드림



김삿갓면 주민들의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10년이 다 되어가는 단체이다. 서로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호흡도 잘 맞고 새로운 것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년에는 새로운 음악에 타악기를 접목하여 난타와 함께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대에 매번 올라갈 때마다 다 두근거리는 떨림과 긴장감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무대를 마치고 내려올 때의 부듯함·성취감과 희열에 모두 무대를 갈망하고 도전하는 것 같다.

# KIMSATGOT WE ART

지역예술인공연

지역예술인공연 초청가수

## 원영지

경기도 안양에서 이사를 온 지 22년차입니다.

영월에 와서 한국무용을 시작으로 민요, 트롯트 등 크고 작은 공연을 하면서 무명으로 지내다가 3년 전 이호성 작곡가님의 유튜브 피망가요, 가장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대학을 졸업하고 음반을 3곡 내고, 11개 방송 동곡, 저작권등록, 정식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 관심있었던 노래강사, 차임댄스, 웃음치료가격을 취득하고, 21년도 한복모델 데뷔와 함께 무궁화한복예술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델가수(만재란)으로 아이넷TV, 가요TV 많은 활동을 하면서 관내에서는 영월FM방송 2시에 가요산책DJ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두바이, 일본, 베트남, 상하이 등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으로는 이호성 작곡의 기적과 이호성 작곡·작사한 말년복, 봄날이 있습니다. 이번 김삿갓 문화제 때에는 기적과 말년복을 보여드렸습니다. 초만간 대전 방송곡으로 시작해서 방송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2월 프랑스로 시작해서 모델 겸 가수로 공연 준비 중입니다. 내년엔 바쁜 시간을 보낼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수로서, 또 모델로서 좋은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삿갓갓탈런트

## 김삿갓갓탈런트

주민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영월 9개 읍·면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김삿갓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27회 김삿갓문화제 김삿갓갓탈런트에는 주민들이 노래,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넘치는 끼를 맘껏 발산하며, 심상치 않은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 참여팀

한석분(두드림 난타)

상동고 야구

유진스 요가플로우팀

왕언니 나발레라

박차고 나온 삿갓할매들

김동민

음악창고밴드

한반도에 뽕당

The 불력

S대 걸그룹

해미걸

참마선



김삿갓갓 탤런트 대상

## S대 걸그룹

저희는 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1학년으로 구성된 팀, S대 걸그룹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저희가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흥과 웃음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천태만상" 인생의 희노애락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 곡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안무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한잔해" 흥겨운 리듬에 맞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고 함께 춤추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한 퍼포먼스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정과 애국심이 가득한 무대를 통해 감동과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삿갓 문화제는 저희에게 단순히 공연의 장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환호 속에서 더욱 큰 힘을 얻었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제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갯 탈렌트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축제를 위해 매써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의 날을 기념 하며 태극기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그 의미가 관객분들께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영월-김삿갓

## 김삿갓문화제, 달달식탁, 지역먹거리

김삿갓면부녀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삿갓면부녀회 회장 한점숙입니다. 김삿갓면부녀회에서는 4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고, 영월군 부녀회에서 총무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위원회, 생활개선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행사는 영월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삿갓면부녀회에서는 단종문화제 이외에도 김삿갓문화제 또한 큰 행사입니다. 관내 큰 단체로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방문하는 고객이 음식을 맛보며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면서 로컬푸드 가치를 전달하려는 마음을 담습니다. 이번 제27회 김삿갓문화제 달달식탁에도 부녀회 회원들과 또 이장님들, 김삿갓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김삿갓문화제는 문학과 예술의 감상기회가 되어 김삿갓의 시와 삶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명감을,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과 함께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먹거리 또한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으로 준비하고 문화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자, 음식을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게 아니라 축제의 감동을 반영하는 요소로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항상 지역 특색과 전통적인 맛을 살릴 음식들이 주를 이뤄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음식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삿갓축제만의 먹거리를 개발해서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아쉽게 남아 있지만, 김삿갓의 자유로운 풍류와 어울리는 먹거리들을 통해 축제의 맛과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달달식탁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축제를 향한 애정 방문객을 환대하는 정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영월-김삿갓

# 책, 압화, 이음과 지음

제27회 김삿갓문화제 체험부스 이야기

이음과 지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송지현입니다. 멀티공방을 운영하며 바느질, 라탄, 향수, 차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공방을 운영하였고, 출강수업과 마켓 등의 행사 참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패브릭 소품, 라탄 공예작품, 방향제와 향수 등 다양한 공예 소품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분야도 판매와 체험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7회 김삿갓문화제에서는 압화 책갈피를 만드는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김삿갓문화제는 시인 김삿갓과 관련되어, 문학과 연계된 콘텐츠인 책갈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압화를 활용하여 책갈피를 꾸미고 코팅을 하여 완성해가는 책갈피 만들기 체험입니다. 체험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참여자들이 압화에 관심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압화를 만들어서 책갈피와 노트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싶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5세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체험을 즐겼고, 한 초등학생은 책갈피 가득 그림으로 김삿갓 만화까지 그려가는 재주꾼들이 있어서 체험 내내 즐겁게 즐겼습니다.





# Slow city

# 슬로 시티

오늘나는  
김삿갓면으로간다.







느림의 삶을 실천하는 도시,

## 슬로시티 김삿갓면

### 슬로시티란?

슬로시티 운동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유유자적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국제 운동이다.

차타슬로 로고는 자연과 느림의 상징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으로 달팽이로 상징되는 자연이 인간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강원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

영월군 김삿갓면은 강원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방 사인 김삿갓의 해학의 미학을 전통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고씨굴과 김삿갓계곡, 만경대산 등 자연 생태를 보존하여 영월군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슬로시티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 시 한 수에 느려지는 발걸음

영월 김삿갓면에는 조선시대 평민들의 생활상을 서로 물어 빛나는 서민문학을 남긴 방방 사인 김삿갓 선생의 생가와 묘역이 있고,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닐고 김삿갓문학관이 있다. 또한 해학과 풍자의 시산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문화 예술혼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매년 10월에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소 :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전화 : 033-372-9001 (김삿갓면사무소)  
홈페이지 : www.yw.go.kr

## 슬로시티 여행정보



### 자가용

① 서울 - 영월 소요시간 2시간 10분

경부·충부고속도로 → 신갈·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 → 안중분기점(충청고속도로) → 제천IC(38번국도) → 영월 → 김삿갓면

경부·충부고속도로 → 신갈·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 → 안중분기점(충청고속도로) → 신림IC(88번국도) → 주천 → 영월 → 김삿갓면

### 버스

동서울터미널 - 영월

예약 : www.t21.co.kr

동서울출발터미널 : 1688-5979

① 1일 8회 운행, 약 2시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 영월

예약 : www.terminal.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 1688-4700

① 1일 4회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수원버스 영월-김삿갓면

영월 → 고씨굴 → 김삿갓면

영월교통 : 033-373-2373

① 약 30분 소요

### 기차

무궁화 청량리역 - 영월역

① 약 3시간 10분 소요

영월역 : 043-641-2757

### 김삿갓면 QR코드로 여행정보 바로보기

#### 김삿갓문학관



김삿갓면 여행정보  
한 눈에 확실히 보세요!

· 김삿갓문학관  
www.ywmuseum.com

· 외씨버선길  
www.beosun.com

#### 외씨버선길



발행일 : 2021년 7월  
제·작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문·의 : 033-370-2541  
기획·디자인 : 아트인베탈 033-764-2501

# 한눈에 김삿갓면

## 1 고씨굴 \* 천연기념품 제219호

4억 년 전 고생대의 신비를 간직한 미로형 동굴. 한 여름에도 16℃를 유지할 만큼 서늘하여 4개의 호수와 3개의 폭포, 10개의 공장이 장관을 이룬다.

주소 김삿갓면 영월동로 1117 전화 033-372-6870 ~ 1

## 2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전통 부족사회 조각을 비롯해 아프리카 대륙 20여 개국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국적인 풍취와 함께 원초적인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주소 김삿갓면 영월동로 1107-1 전화 033-372-3229

## 3 영월동굴생태관

수억 년 전 동굴 생물들과 박쥐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입체 영상을 통해 신나는 동굴 탐험을 할 수 있다.

주소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5 전화 033-372-6828

## 7 모운동벽화마을

구름도 쉬어간다는 뜻의 마을로 가파른 벽화가 인상적인데 이 벽화들은 마을 주민

주소 김삿갓면 주문리 전화 033-374-95

## 8 양씨판화미술관

모운동의 옛 생활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 다채목판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판

주소 김삿갓면 모운동길 463-18

## 9 김삿갓 계곡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가르는 계곡으로 시원한 계류와 숲속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주소 김삿갓면 와석리 전화 1577-0545



## 5 와이너리 예밀촌

포도 생산에 최적의 여건으로 당도 높은 명품 포도를 생산하는 마을. 와인 축제가 열리는 9-10월이면 공연과 와인 족욕, 시음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전화문의 필수 주소 김삿갓면 예밀촌길 229-4 전화 033-372-7422

## 6 만봉불화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만봉스님의 유물과 탕화, 도자기 등 한국 전통불교미술의 걸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화 박물관이다.

주소 김삿갓면 망경대산길 135-3 전화 033-372-5009

## 10 난고 김삿갓박물관

김삿갓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천필 작품 외에도 다양한 관련 자료와

주소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전화 033-372-4332

## 11 조선민화박물관

조선시대 진본 민화와 고가구, 현대 민화 여러 가지 독특한 민화 상품도 구입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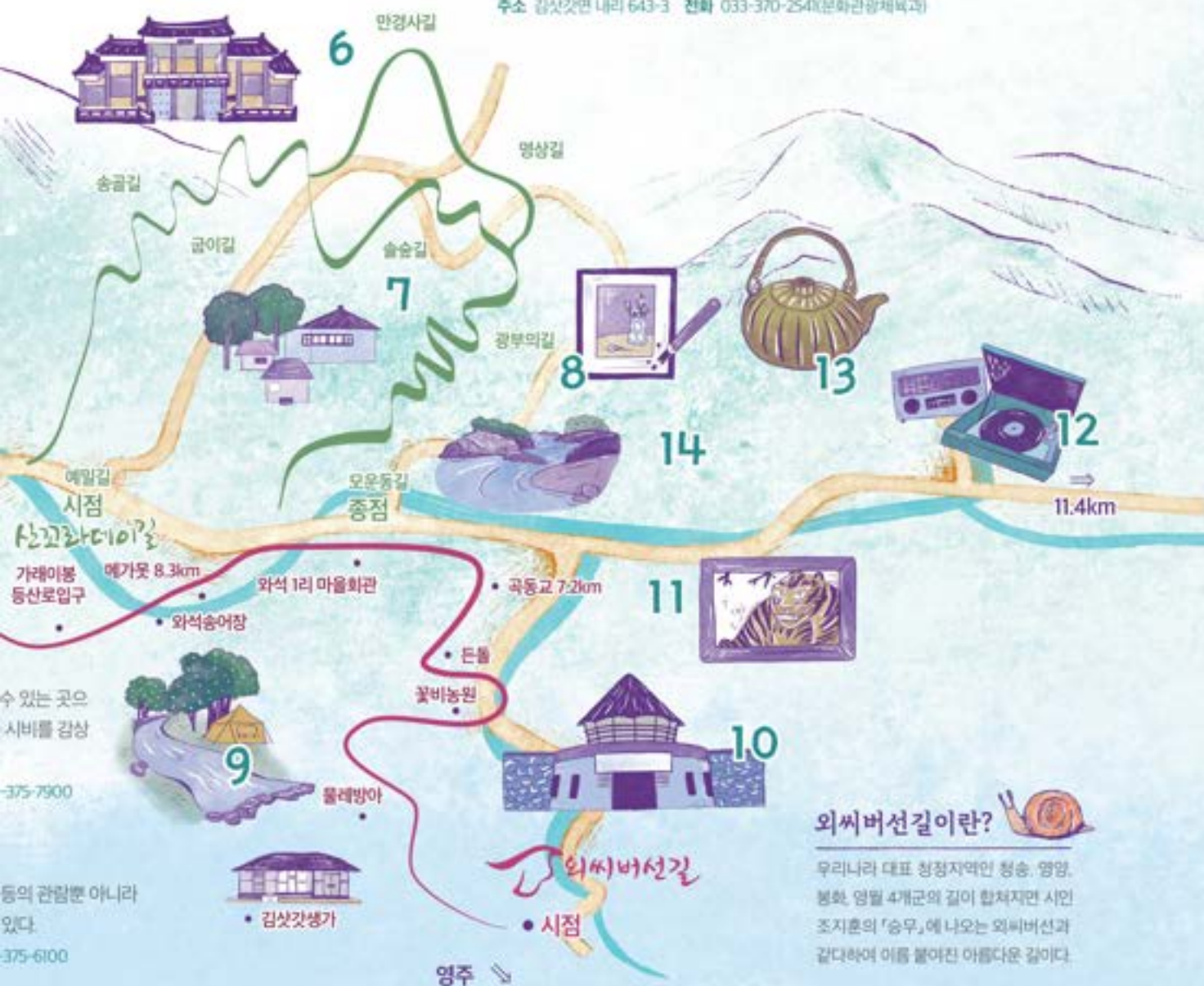
주소 김삿갓면 김삿갓로 432-10 전화 033-372-4332



산비탈 따라 들어선 집들이다 그려져 있는  
민들이 손으로 그려 더욱 특별하다.

과 현대적인  
화 전문 미술관 갤러리다.

김삿갓 유적지에 이르는 계류이다.  
바람이 절로 시원이 되게 한다.



## 12 음향역사박물관

1920년대 진공관 라디오와 트랜지스터 라디오 등 라디오 250여 점과 녹음기, 녹음기 등 다양한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8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 전화 070-8827-4028

## 13 호안다구박물관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차(茶) 문화와 관련된 도구 500여 점이 전시돼 있으며 다양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주소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088 전화 033-378-5779

## 14 내리계곡

기암절벽이 많고 숲이 우거져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물이 맑아 물놀이와 낚시를 하기에 좋다. 산에 둘러싸여 있어 야영이나 등산도 겸할 수 있다.

주소 김삿갓면 내리 643-3 전화 033-370-2548(문화관광체육과)

## 외씨버선길이란?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 4개군의 길이 합쳐지면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외씨버선과 같디하여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길이다.

# 슬로시티 체험&문화

자연, 문화, 사람의 어울림이 빛나는 곳. 영월 김삿갓면  
청정자연과 함께 이색체험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 에밀와인축제

특산물인 와인과 포도를 활용한 먹거리와 체험이  
풍성한 이색 축제로 각종 클래식 공연, 재즈 공연,  
와인 토크쇼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시기: 매년 10월 말

장소: 에밀2리 와인체험장 일원



## 김삿갓문화제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문화 예술혼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행사로 백일장,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  
등의 체험행사가 있다.

시기: 매년 10월 중순

장소: 와세기 김삿갓유치지 일원



## 김삿갓 와이너리 체험

에밀촌 와인 가공시설에서 와인이 생산되는  
과정과 간단한 와인 상식들을 접할 수 있으며,  
나만의 와인 만들기, 와이너리 투어, 와인 족욕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기: 상시 장소: 에밀촌길 237 와인체험관



## 김삿갓 시인의 마을 체험

다양한 문화공간과 김삿갓계곡, 옥동천을 곁에  
두고 있어 사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며  
와이너리길 김삿갓 방랑체험, 김삿갓 계곡물놀이,  
민화 그리기, 김삿갓방 체험을 할 수 있다.

장소: 김삿갓면 들모행이길 115  
문의: 033-374-0290



## 내리산촌 산채 체험

망경대산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숲 체험도 하고  
각 종 산나물을 채취해 직접 나물밥도 지어먹을 수  
있다.

장소: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142  
문의: 010-9185-9095



##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의병장으로 활동한  
백두 김상태 의병장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추모제, 걷기대회 등이 열린다.

시기: 매년 5-6월  
장소: 김삿갓면 옥동리 일원



## 다도 체험

차(茶)를 통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이 가다림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고  
다도, 차고전, 다회 통과의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장소: 호안다구박물관 문의: 033-376-5779



## 동강 리버버킹

매력있는 야생 체험으로 동강의 수려한  
절경과 함께 스릴 넘치는 급류타기와  
물놀이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레포츠다.

문의: 033-372-4702





## 슬로여행 추천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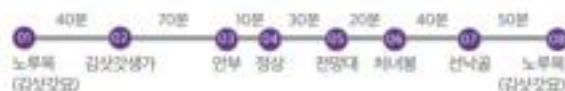


### 김삿갓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산, 마대산 트레킹 #백두대간

천재 풍류사인 김삿갓의 생애를 실감할 수 있는 마대산 트레킹 코스는 김삿갓문학관에서 시작해서 김삿갓 주거지를 지나 정상을 돌아 차녀봉 방향으로 하산하는 약 8km 4시간 정도로 다녀올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1,052m의 정상에 서면 동강, 창목수림, 김삿갓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생가터와 묘역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김삿갓 유적지는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3도 접경 지역으로 산맥의 형상이 노루가 말머리 있는 듯한 모습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불려오고 있다. 마대산면 아름다운 무거진 소나무 숲이 절경을 뽐내고 있는데 숲길을 지나 정상에 오르면 함백산, 태백산, 선달산, 소백산을 따라 백두대간과 함께 고비굴 관광지까지 이르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추천코스 01 ④ 도보 8Km | 반나절 코스



• 마대산 트레킹 코스 이용안내 주소: 김삿갓로 296-22 전화: 033-370-3426

###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영월 박물관 여행 #일출여행 #가족여행

영월군은 2008년 12월 19일에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6개의 공·사립 박물관이 산재해 있다. 그중 솔로시티 김삿갓면에 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와 편안한 감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김삿갓면엔 방월의 향토 역가리인 산재박물관, 곤드레밭, 당도 높은 포도가 유명한 사전 조사를 통해 코스에 넣는다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될 수 있다.

#### 추천코스 02 ④ 자동차 | 1박 2일 코스



## 김삿갓처럼 유유자적 길 여행



### 산오라메이길

산오라메이는 산골짜기를 의미하는 사투리로 총 27.5km에 이르는 산책로이다. 김삿갓 포도로 유명한 예림마을을 지나 예림길과 굽이굽은 18급잇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송골길, 만경사길, 영성길 등 총 8개 코스로 조성된 산오라메이길은 영월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 조성되었다.

#### 세부코스 ④ 소요시간 구간별 상이 | 총 27.5Km | 구간 난이도 최상



### 외씨버선길 12 김삿갓문학길

방랑 시인 김삿갓의 행적을 따라 자연을 벗하며 걷다 보면 누구나 시간이 되고, 길 속의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구간의 마지막인 가랑이봉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평탄한 마을 길과 계곡 옆 숲길로 이루어져 있다. 외씨버선길 중에서도 가장 찾는 이가 많은 길 중 하나다.

#### 세부코스 ④ 소요시간 3~5시간 | 12.7Km | 구간 난이도 중~하



### 외씨버선길 13 관동현가는길

400년 시간을 두고 김삿갓과 단종을 만난다. 김삿갓은 무슨 이유로 단종의 관동현을 찾았을까? 만났을까? 만났으면 길을 걸으면 옛사람의 악착같은 삶을 그려볼 수 있다. 관동현 가는 길은 외씨버선길 15개 구간 중 가장 긴 구간으로 하루에 원주 하기보다는 두 번에 나눠 걷기를 추천한다.

#### 세부코스 ④ 소요시간 8~10시간 | 24.6Km | 구간 난이도 최상



## 죽 한 그릇

네 다리 소나무 상에 놓은 죽 한 그릇  
하늘 빛과 구름그림자 함께 노닐고 있네.  
주인이여 무안해 하지 마오  
나는 청산이 물에 거꾸로 비치는 것을 더 좋아한다오.





# 제58호 조 단종 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5. 4. 25 금 - 4. 27 일

세계유산장릉·영월문화예술회관·동강둔치·청령포·관풍헌



주최·주관:

영월문화관광재단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KANGHONLAND  
주요행사 담당부서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농업경영외 영월군지부





